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502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015년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문자 학습서 『訓蒙字會』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송 지 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자 학습서 『訓蒙字會』 연구

A Study of 『Hunmongjahoe』, Character Study Book

2015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송 지 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문자 학습서 『訓蒙字會』 연구

지도교수 석 주 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송 지 연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송지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조 희 정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 경 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석 주 연 인

2015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1. 서론……1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1

1.2. 선행연구 검토……4

2. 『訓蒙字會』의 등장 배경 및 체제……10

2.1. 『訓蒙字會』의 등장 배경……10

2.2. 『訓蒙字會』 서지 및 체제……15

3. 『訓蒙字會』의 내용……23

3.1. 『訓蒙字會』의 문자 배열……23

3.2. 『訓蒙字會』 수록 문자의 종류 및 특징……28

3.2.1. 한자 학습서 내 한자 사용……28

3.2.2. 한자 학습서 내 어려운 한자……37

3.3. 『訓蒙字會』 한자 새김의 종류 및 특징……39

3.3.1. 단일새김……40

3.3.2. 복수새김……42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문자 학습서『訓蒙字會』 분석……46
4.1. 『訓蒙字會』와 한글 학습……46
4.2. 『訓蒙字會』와 한자 및 한자어 학습……54
4.2.1. 한자의 구조를 활용한 한자 및 한자어 학습……54
4.2.2. 글자의 구성을 활용한 한자 및 한자어 학습……61
4.2.3. 부수를 활용한 한자 및 한자어 학습……63
4.2.4. 한자 및 한자어 학습의 효과……66

5. 결론……67

참고문헌……70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f 『Hunmongjahoe』, Character Study Book

Song Jiyeon
Advisor : Prof. Ju-yeon Suk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mparing 『Hunmongjahoe』, a letter study material, with existing letter study materials in terms of the kinds and properties of arranging and containing character concerned about system and letter order of 『Hunmongjahoe』. This paper sees them from the educational aspect of language.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research and task of educational aspect of language. To help understand the value and property of educational aspect of language which 『Hunmongjahoe』 has, this study inquires 『Cheonjamun』, 『Yuhap』 and 『Shinjeungyuhap』, the Chinese letter study materials in that period of history.

Although Chinese studying materials such as 『Cheonjamun』 and 『Yuhap』 which had been imported from China were broadly used in 16th century as a means of literal education preceding sentence education, it is expectable that there were some resistance to the burden of study coming from literal learning and rote learning unrelated to using of native language.

There were several reasons why new study materials such as 『Hunmongjahoe』 were developed over many times.

This thesis is going to argue focusing on the fact that Choi Seji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onstituted the study material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language learners to experience meaningful language education.

This thesis refers to the research about Chinese study material, the representative precedent research on the literal education of Chosun Dynasty which is conducted by Kim Jongwoon.

This research conducted bibliographic study about the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study materials in a Chosun Dynasty era.

However, it failed to examine every idea about Chinese characters and the literal education influencing a composition of study materials and did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many study materials.

Now, there is a need to conduct a internal research in this wide range of precedent research.

In this regard, this thesis will conduct a research on methods and ideals of learning Korean and Chinese characters included in 『Hunmongjahoe』 throughout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Chinese study materials before 『Hunmongjaho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학자인 최세진(崔世珍, 1468-1542)이 1527년(중종 22)에 저술한 『訓蒙字會』의 등장배경, 편찬 특징 등을 기존 선행 한자 학습서들과 비교해보고, 『訓蒙字會』의 체제, 문자 배열 및 종류로부터 『訓蒙字會』의 문자학습서로서의 성격 및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16세기의 문자 교육은 장차 한문으로 된 典籍들을 읽어야 했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념이나 고급 문화를 생산해야 했다. 그리고 문자 학습을 통해 사물의 이름과 事象의 이치를 깨달아야 했으며, 지배 계급이 지녀야 하는 판단력과 도덕적인 품성을 길러야 했다. 그리하여 당대의 학습은 관리가 되려는 목적, 혹은 고급 문화를 향유할 목적에서 아동기부터 한자를 익혀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시대의 초급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진 문자 교육은 한글보다 한자가 중심이었고, 한자 학습은 주로 한문 학습에 선행하여 실시되었다. 따라서 문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문장 학습에 필요한 한자와 기초적인 문법을 익히는 것이었다.

16세기 한자 교과서의 체계가 지금과는 다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논의되었다. 언어의 기능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본다면, 어느 시대의 언어이건 의사소통의 매체로서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언어란 없을 것이며, 과거의 언어를 연구함에 있어서 오늘날의 언어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고안된 연구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1] 문자나 어휘 학습서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16세기의 문자 교육의 모습이 반영된 한자 학습서를 통해 그 내용이 학습서로서의 용도에 알맞게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해볼 때 『訓蒙字會』가

1) 석주연(2003)을 참조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당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리라 생각된다.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문헌 자료를 『訓蒙字會』와 서로 비교함으로써 각각 문헌의 성격에 따라 견주어 정리한다. 오늘날 『訓蒙字會』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訓民正音』이 현대 맞춤법에 끼친 영향의 측면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기에, 『訓蒙字會』에 드러난 어떤 특징이 맞춤법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 본다.

당대에 사용된 대표적인 교재는 『千字文』이었다. 『千字文』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교재로 약 1,000자를 4자를 기본 단위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데, 4자는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 문장 형식이었다. 따라서 문자 습득 과정에 있던 학습자들은 반드시 『千字文』을 암기해야 했다. 그리하여 『千字文』은 초보적인 문자 교육 학습서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최세진은 『訓蒙字會』를 편찬하면서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千字文』을 마치고 『類合』을 읽힌 뒤에 다른 책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千字文』이 한자 학습 학습서로 널리 사용되던 상황에서 실상 『千字文』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학습서였으며, 문자 교육을 처음으로 학습하는 아동에게는 『千字文』이 어려운 고사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고사를 익히는 학습은 당시 아동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당시 보급된 『訓民正音』과도 구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글을 배우기에는 적합한 학습서가 아니었다.

『類合』은 모두 1,512자의 기본 한자를 수량·방위 등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새김과 독음을 붙여 만든 한자 학습서이며, 『類合』은 출간 당시부터 편찬자가 미상이었지만 출간 이후 초보적인 문자 교육 학습서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리고 『類合』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편찬한 유희춘의 『新增類合』 역시 『類合』과 동일하게 한자를 의미에 따라 모아서 분류한 학습서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新增類合』을 『類合』을 별개로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차이를 두었다.

『類合』은 김종운(2001:35-36)에 따르면, 『類合』은 초보적인 한문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 추상적이고 난해한 『千字文』의 단점을 보완하는 목적에서 출간되었다. 『類合』은 사물의 표현에 있어서 비슷한 의미를 갖는 類에 속하는 한자끼리 모아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를 갖는 類에 속하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것끼리 모아 놓은 類別 분류체계 방식은 학습자에게 있어서 학습 내용을 혼돈하지 않고 쉽게 익힐 수 있다. 이처럼 『類合』은 한자를 의미에 따라 類別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왔다고 한다. 『類合』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의 의미에 따라 類別되어 四字成句로 배열되어 있으며, 본문에 유별에 관한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의미에 따라 유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類合』의 내용은 사물을 27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3,000자의 한자를 매 글자마다 四聲을 명시하였으며, 글자 밑에 한글로 음과 새김을 달았다. 한자를 의미에 따라 모아서 분류한 측면에서 『類合』은 『千字文』보다 뛰어난 학습서임은 분명하였다. 그러나 『類合』이 한자를 類別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자가 적어 사물의 형상과 이름 익히기 어렵고, 수록된 한자의 수가 3,000자에 이르러 학습량이 과다함에 당시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한자가 내용상에 누락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類合』은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한자 학습 학습서가 필요하였다.

당대의 한자 학습서로 『千字文』, 『類合』 등이 있었지만, 이 학습서들은 각각의 구성 방법이 달랐으며, 실상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학습서였고 당시 문자 교육에 적합한 학습서가 아니었다. 이에 최세진은 우리나라 정서에도 알맞으며 배우기에도 적합한 학습서를 직접 편찬하였다. 최세진은 한자 학습을 쉽게 하기 위해 『類合』의 내용을 보완하여 『類合』과 같은 형식인 類別 분류 체계로 구성된 『訓蒙字會』를 편찬하였다. 『訓蒙字會』는 각 분야별로 상권 16개 부류, 중권 16개 부류, 하권 1개 부류, 총 33개 부류로 정리했다. 대체적으로 일상적인 생활과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언어 학습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訓蒙字會』는 한자 학습 교육 목적으로 우리나라 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여러 한자 학습서중 가장 대표적이며, 최세진이 문자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위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또한 『訓蒙字會』는 문자와 사물이 분리되는 『千字文』, 『類合』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사물을 구체화하는 등 경험적인 한자 학습이라는 새로운 문자교육관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당시의 실정과 새로운 교육적 안목을 반영한 『訓蒙字會』의 등장은 아동의 문자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訓蒙字會』는 당시 기준으로 필수 어휘를 선정하여 3,360자의 상용자를 수록했다. 표제자마다 새김과 음을 달고 필요한 경우, 당시 통용하던 해당 白話어휘를 부기한 어휘 해설서이기도 하다. 그래서 『訓蒙字會』 새김은 편찬 당시의 우리말로 기록된 귀중한 자료이다. 주석에는 812개의 당시 중국어의 口語 어휘가 수록되어 있으며, 하권에는 표제자로 口語 어휘를 다수 수록했다. 새김에 있어서도 당시 口語의 어휘 의미로 풀이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볼 때, 훈몽자회는 국어학과 중국어학에서 귀중한 자료로서 재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訓蒙字會引과 凡例를 중심으로 『訓蒙字會』의 등장 배경과 편찬 방법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최세진이 인식한 당시 문자 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訓蒙字會』의 실질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고 미흡한 지를 살펴본다.

『訓蒙字會』는 이미 다방면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선행연구를 토대로 『訓蒙字會』를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고 『訓蒙字會』의 체제, 문자 배열에 관하여 정리하며, 수록 문자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후 문자 학습서의 언어 교육 연구와 과제에 대하여 조명해보고 『訓蒙字會』가 가진 문자 학습서의 언어 교육적 특징과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訓蒙字會』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서지학적인 연구, 최세진 생애 연구, 성조 연구, 『訓蒙字會』에 수록된 한자음 연구, 『訓蒙字會』에 나타난 훈의 어휘적 사항을 포함하여 이본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연구, 한어 원문에 대한 연구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초기에는 주로 서지학적인 연구로 『訓蒙字會』 판본간의 순서와 교감을 연구하였고, 이본간의 전반적인 비교 연구를 추가하였으며, 이후로 한자 음, 훈에 대한 연구 및 방점에 관한 연구, 그리고 어휘 의미론적 연구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訓蒙字會』의 서지학적 연구 중 방종현(1954), 남광우(1958), 김근수(1971),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기문(1971)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방종현(1954)은 『訓蒙字會』의 이본간의 자료 15책에 해당하는 이본간의 차이에 관해 논하였으며, 이기문(1971)에서는 『訓蒙字會』의 凡例에서 나타나는 이본 간의 방점과 표기 차이에 대해 논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이숭녕(1965), 박태권(1974)에서 최세진의 국어학사적 위치를 다루면서 『訓蒙字會』의 서지학적인 해제와 이본들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최세진의 생애 연구는 국어학사적 의의와 함께 논의되었다. 서병국(1965, 1993)은 최세진을 중국어 학자로서의 살펴보며, 최세진의 역학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박태권(1974)은 최세진의 생애와 더불어 최세진이 남긴 언어학적 업적을 살폈다. 강식진(1999)은 최세진이 국어학자이며 중국어학자임을 논의하고, 최세진이 역관으로서 번역 저술활동을 나열하였다. 정광(1999)은 최세진의 생애를 바탕으로 업적을 연보로 작성하고, 후세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숭녕(1965)과 류탁일(1969)도 최세진의 일생을 연보로 작성, 각각 최세진과 연관된 조선 중인 출신 학자의 위치 고찰과 최세진의 인간성과 연보를 실록이나 기타 기록을 통해 정리하였고, 조선실록에 의하여 최세진의 계보를 정리했다.

박병채(1972)은 초간본이 만들어진 16세기초부터 이본간에 성조를 비교 연구하였다. 이돈주(1979)에서 『訓蒙字會』에 나오는 한자음을 소개하였으며 여기서는 음운론적 연구 업적과 특성 및 변화를 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어휘적 연구는 『訓蒙字會』의 훈을 중심으로 하되 『訓蒙字會』와 유사한 자학서를 연구 대상 자료로 포함시킨 업적들을 주로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남광우(1987ㄱ, 1987ㄴ)는 앞서 음과 훈을 동시에 연구하였고, 한자훈을 종합 연구하여 어휘의 음운, 형태, 의미에 대한 어휘의미론적 고찰을 행하였다. 『訓蒙字會』의 훈의 연구와 국어어휘론적 연구는 무엇보다도 이을환(1982)이 대표적이다. 『訓蒙字會』를 어휘의미론적 이론에 입각하여 어휘목록에 대한 비교를 행했고, 훈으로 나온 어휘들을 공시적으로 정리하였다. 박병철(1984), 최범훈(1984, 1985)은 『訓蒙字會』와 한자석 가운데 난해한 석을 중심으로 『訓蒙字會』 어휘를 소개하였으며 김희진(1988)에서도 『訓蒙字會』에 나오는 어휘를 의미론적으로 논의를 행한 바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밖에 이기문(1972), 남광우(1984ㄱ, 1984ㄴ)는 자학서를 중심으로 한자훈을 통시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손희하(1984)는 『千字文』을, 박병철(1986)은 『新增類合』에 나타나는 훈도 참조하였다. 이밖에 유창균(1969), 서병국(1973), 신경철(1978), 김석득(1975), 서재극(1980), 김민수(1982), 이기백(1991), 김진규(1982)는 『訓蒙字會』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다.

『訓蒙字會』을 교육서로서 다룬 논의는 최현배(1941)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최현배(1941:277)는 한글쓰기의 실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訓蒙字會』가 우리 국어를 가르치고, 중국어를 기록한 한문을 가르치기 위한 이론적 설명은 없지만 하나는 언문을 가르치고, 하나는 한문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범례에 '언문자모 속소위반절이십칠자(諺文字母俗所謂反切二十七字)'를 붙여 풀이해 놓았으니, 이것이 비록 이론적 설명을 빠뜨렸으나 그 실제적 방면에 있어서 중대한 획기적 전환을 지은 것이라고 하였다.

임만영(1976:1-14)은 『訓蒙字會』가 아동 한자 교과서로서의 실제 교육을 연구 하며 한자 교과서보다 국어 정리의 의의가 더 크다고 보고 최세진이 교육자임을 주장하였다.

이응호(1983:63)에서는 개화기 이전까지의 초학자들의 한자 입문서라 칭했다. 그러나 초학자들이 한자를 배우는 데에 가장 기초적이고, 널리 쓰인 책으로 『訓蒙字會』, 『類合』, 『千字文』있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한자의 실용과 대중화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류점숙(1984:243-248)은 아동기(8-15세) 문자 교재로서의 『訓蒙字會』를 연구하였는데, 『訓蒙字會』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신체, 기명 등의 구체적인 문자가 효과적으로 제시되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것을 많이 다루고, 최세진이 『訓蒙字會』에서 실학의 내용과 연결시킴으로써, 유학의 진수인 성리학이 공허한 이론과 형식적인 예론에 치우쳤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하여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을환(1982:145-150)은 삼위일체(語, 意味, 事物)의 언어교육서라 한다고 했다. 종래 『訓蒙字會』에 관해서 서지학적 문헌 해결, 국어사적인 의미와 평가, 국어사자료, 한자 학습 교본의 자료, 최세진에 대한 전기적 연구 등이 주종을 이루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왔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김희진(1988)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삼고, 자훈, 특히 명사자훈의 유의관계 구조를 중심으로 한 어휘적, 의미론적인 논의를 통하여 최세진이 사실세계, 외재세계, 실재세계를 중시함으로써 합리적인 문자 교육 및 어휘 교육을 모색하고자 하였다고 했다.

허왕욱(2001:195-218)은 『訓蒙字會』가 실물과 문자의 대응 관계를 고려한 교재 구성이기도 하고, 최세진이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문자 학습을 위주로 하면서 문장 학습을 염두에 두고 구성하기도 했으며, 문자의 의미 관계를 고려한 구성이라고 하였다.

강우영(1990)은 『訓蒙字會』 저자 및 저작경위, 내용을 연구하였는데, 체제면에서의 초학자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사물에 해당하는 글자를 먼저 알게 하려는 작가의 한자교육관을 엿볼 수 있다 언급하였으며, 한자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시켜서 글자를 쉽게 익히도록 하려는 내용면에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상도(1992)에서는 당시 한자 교습서의 비판과 『訓蒙字會』 편찬 동기 및 중국어 교육을 연구했고, 『訓蒙字會』의 교육대상인 '아동'을 지금의 어린이와 지적 수준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訓蒙字會』의 구상명사가 너무 적고, 문장이 낱자로 구성되어 구상명사를 대표하는 사물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강명숙(1998:130-138)은 『千字文』을 비판하면서 대두한 『類合』, 『訓蒙字會』, 『新增類合』 등의 학습서를 중심으로 조선 중기 초등교육에 관한 연구를 논하였는데, 조선 중기 문자학습서의 경우는 아동의 문자 학습에서 실자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하며 글자의 구성 및 배열방식은 類別 분류 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반영되어 개발된 교재라고 하였다. 조선 중기에 초등교육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와 교재의 개발은 당시 학문의 발달과도 연관이 있다.

김종운(2001)은 『訓蒙字會』를 조선조 몽학 교재라고 명칭을 정하고, 몽학 교재 중 문자 교육을 위한 교재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몽학 교재의 교육 목적에 따라 문자교육 교재와 문장교육 교재로 나누어 구성형식과 내용을 분석 하였는데, 『訓蒙字會』이외에도 당대에 한자를 익히기 위해 사용된 각 교재를 토대로 교재의 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성과 교육관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작자와 저작 연대 및 구성에 대한 개관을 고찰했다. 또한 조선조 몽학 교재에 대한 현대의 교육적 의미와 향후 활용 방향을 제시, 현대 한자를 교육함에 있어서 조선조 몽학 교재가 현대의 학교 교육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지도 방법이 개발되어야한다는 견해는 매우 흥미롭다.

그동안 『訓蒙字會』에 대해서는 이기문의 연구를 비롯하여 국어학, 서지학 관계 연구 성과들이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의 최세진과 『訓蒙字會』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또한 한자 학습서로서 교재 구성에 작용한 문자 및 문자 교육에 대한 당대의 생각을 내밀하게 살피지 못했으며, 여러 교재들 사이의 변별점도 밝혀내지 못했다.

『訓蒙字會』가 한글의 자모명칭에 영향을 끼친 점은 한글 보급에 공적을 높이 평가할만하며 실자에서 허자로 나아가는 한자의 분류와 배열에서 나타나는 최세진의 문자 교육은 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겠다. 전체적으로 벌여 놓은 연구의 범주에서 이제 내면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자 학습서의 재구성 과정 속에 담겨있는 한자 학습의 방법과 이상을 살피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자료로 삼은 『訓蒙字會』와 비교대상이 되는 『千字文』과 『類合』, 『新增類合』의 판본과 연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훈몽자회 예산문고본(1527)
훈몽자회 동경대학본(1592년 이전)
천자문 광주간본(1575)
천자문 내각문고본(1583)
유합 칠장사본(1644)
유합 송광사본(1730)
유합 영장사본(1700)
신증유합 나손본(1576)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런데 본 연구의 목적이 16세기에 출간된 한자 학습서를 자료로 삼고, 16세기의 문자 교육을 살피는 것에 있으므로, 위에서 보인 자료 중에서 16세기에 출간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의 대상을 선택하고자 한다. 따라서 『訓蒙字會』의 경우는 예산문고분을 중심으로 하고, 비교대상이 되는 자료인 『千字文』은 광주간본과 내각문고본을, 『新增類合』의 경우는 나손본을 주된 자료로 삼고자 한다. 『類合』의 경우는 『新增類合』보다 이른 시기에 존재했지만, 칠장사본 이전에 출간된 자료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으므로 칠장사본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지금까지 『訓蒙字會』에 관한 연구 업적들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업적들이 『訓蒙字會』서지학적 연구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6세기 문자 교육 학습서 구성에 작용한 당대의 생각을 내밀하게 살피지 못했으며, 훈몽자회 이전의 학습서인 『千字文』, 『類合』 등의 학습서 사이의 변별점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진 훈몽자회 연구의 성과 등을 토대로 기존 선행 연구 전반에 걸친 양상과 특징들에 관한 논의와 이와 관련하여 훈몽자회 이전의 한자 학습 학습서의 재구성 과정 속에서 훈몽자회에 담겨있는 한글 학습과 한자 및 한자어 학습의 방법에 관한 논의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들 전반에 관한 연구는 언어 교육적 연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각 문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訓蒙字會』의 등장 배경 및 체제

2.1. 『訓蒙字會』의 등장 배경

한자, 한문교육의 단계를 한자 교육, 한자어 교육, 한문 교육의 순서로 구분할 때 문자교육 학습서는 한자, 한자어에 필요한 학습서이다. 문자 교육은 문자 학습 위주의 학습을 할 수 있어 한자의 훈음과 한자어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김종운 2001:44).

황금중(2007:224-229)은 조선시대에 시행되었던 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고 조선시대의 교육에 관한 배경과 전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訓蒙字會』를 교육했던 시기를 살펴보는 것은, 『訓蒙字會』의 교육에 관한 배경과 전개를 검토함과 동시에 16세기 문자 교육의 성격까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유학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은 당연히 유학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 아동교육 또는 기초교육 기관으로 발달한 서당의 경우도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학이나 잡학은 해당 전문 지식 이외에도 유학을 기초 소양으로 학습하였다. 이 견해에 대하여 김용동(1985:28)에서는 서당의 교육과정을 講讀, 製述, 習字로 나누었고, 권오석(1993:20)은 초급 한문 교재 중 가장 보편적으로 講讀에 사용되었던 교재가 『千字文』과 『小學』 등이었다고 하였다. 서당의 교육 방법은 한자, 한자어, 한문의 순서로 먼저 낱글자를 가르치고 이어서 낱글자를 붙여서 음독하는 것을 가르쳤다. 한자에 대한 기초 학습이 끝나면 句讀의 문리를 가르치고 한 문장의 뜻을 가르친 후 다음에는 스스로 해석하고 읽게 하였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은 상급학교인 성균관 등으로 진학하거나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하는 등 과거 우리나라에서 아동들이 처음으로 한자를 배울 때에 『千字文』과 『類合』의 순서대로 한자에 대한 기초 학습과정으로써 한자 학습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세환(2007:204-205)은 『千字文』이 당시 우리나라 교육 상황의 한 단면을 나타내며, 조선 시대의 『千字文』은 아동교육의 시작의 필수 과정이라고 하였다. 안병희(1999)도 왕조실록(王朝實錄)의 기록으로도 뒤의 인종(仁宗)이 3살 때에 벌써 『千字文』과 『類合』을 다 익혀서 부왕인 중종의 물음에 한 자의 착오가 없었다고 하였다.[2)]

김종운(2001:30-33)에서는 『千字文』이 아동에게 문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학습서로 사용되었고, 『千字文』은 四字成句의 韻文으로 구성되어 암송하기에 편리한 장점도 있어 몽학 교재의 모범이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千字文』 구성의 형식적 특징은 四字成句의 자수별로 분류되었고 내용은 삼재사상에 바탕을 둔 天, 地, 人과 관련된 고사를 중심으로 편찬되었다고 하였다. 김종운(2001:65)에 따르면 『千字文』의 장점은 구성이 四字成句로 이루어져 송독 학습이 가능하며 각종 고사를 통해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千字文』이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초급용 한자 교재로 널리 사용된다고 하였다.

『千字文』은 유교경전을 공부하거나 글을 짓는 데는 도움이 되는 利點이 있겠지만, 중국의 典故를 담은 成句로 되어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다. 즉, 『千字文』이 어려운 고사 성어에 얽힌 추상적 글자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개의 글자끼리 억지로 묶여 분절적으로 句를 이루고 있는 까닭에 관련성 있는 글자들이 따로 흩어져 연계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닌다. 『千字文』이 한자 학습용 교재로 보편화되면서 한자 학습을 끝내는 것과 다음 단계의 학습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았다.

손희하(1991:145-173)는 『千字文』은 한 한자에 一義一音을 원칙으로 하여 새김[3)]과 음을 붙이고 이것은 한자의 대표적인 뜻을 새김으로 취하였는데, 그러다 보니 '辰宿列張'[4)] 시구처럼 새김을 바탕으로 할 경우 四言 古詩로 해석되지 않고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할 때 특히 한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많은 의미

2) 中宗實錄 12년(1517년) 4월 戊午조 및 仁宗誌文 참조하였다.
3) 새김, 訓, 釋, 字釋, 字訓, 諺釋 등으로 일컬어 왔다.
4) 문맥으로 보아 '辰宿'은 '별'로 새겨야 하나, '미르 진, 잘 숙'으로 새기고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은 학습자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고 하였다. 『訓蒙字會』, 『新增類合』에서도 한자의 대표적인 의미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지켜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형+새김+音이 한 덩어리로 결합되어 새김과 소리가 기호처럼 특정 한자를 지칭하게 된 것이며, 특히 부수 글자의 경우는 한자의 명칭으로 호칭되어 현재까지 내려오며, 보수성이 강하다고 하였다. 김원기(2002)는 원래 한자는 一字一義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나 인간 관계가 복잡해지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本義 외에 여러 뜻을 지니며, 그만큼 글자에 담겨있는 의미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자는 상황에 따라 문맥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 千字文의 문제점

가. 수록된 한자가 너무 추상적이다.

나. 어려운 고사 위주의 문장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다. 한자학습에 효과적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강명숙, 1998:130-135)

위에서 볼 수 있듯이 (1가)의 경우를 보면 당시에 이루어진 『千字文』 비판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수록된 한자가 허자를 다수 포함하고 고사성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1나, 다)를 통해 아동들이 읽고 실천하기에는 내용이 난해하다는 지적이다. 한 개의 한자에 대하여 음과 새김 그리고 글자 모양을 암기하여야 온전한 한자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千字文』은 아동들로 하여금 뜻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추상적인 한자를 중구난방으로 암기하도록 하는 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類合』은 『千字文』과 달리 成句의 다른 한자로써 字義를 분명하고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진다. 『類合』이 지닌 이러한 구조적 특징과 효용성은 이후 정약용에 의하여 ‘‘주홍사가 지은 『千字文』은 서거정이 만든 『類合』만 못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다.''라고 『千字文』식의 한자 구성과 대비되는 새로운 한자 구성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類合』은 제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한자를 종류별로 합하여 놓은 類別된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類合』은 다양한 항목에 따라 한자의 종류를 구별하고 뜻과 음을 붙임으로써 이른바 類別에 의한 한자구성의 방식을 제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자 학습용 교재로 평가된다. 『類合』이 종류별로 연관성 있는 한자를 묶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사성어 중심으로 글자가 제시되는 『千字文』에 비교하면 한자 학습에 훨씬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類合』은 규모가 작아 긴요한 글자가 누락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즉, 『類合』은 한자를 달리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겠지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그다지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최세진은 『訓蒙字會』의 서문에서 『類合』은 '虛多實少' 곧 '허자가 많고 실자가 적어서 事物·形名의 실상을 알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다. 유희춘은 『新增類合』의 서문에서 『類合』에는 요긴한 한자가 많이 빠졌다고 하여 약 2배인 3,000자로 늘리는 한편, 그 발문에서 승려를 높이고 儒聖을 배척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 수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전하는 『類合』의 本文에서는 발문의 비판에 해당하는 成句를 찾기 어렵다. 『類合』이 『新增類合』이 나온 뒤에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16세기 후반의 한문본도 후대의 다른 주석본과 본문이 일치한다.

최세진의 『訓蒙字會』는 바로 『千字文』과 『類合』의 구조적인 장단점을 취사선택하되, 내용면에서는 한자와 구체적 사물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자교육관을 토대로 편찬되었다. 訓蒙字會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자 교육이 실제 經驗을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행해져 왔음을 비판하고 있다.

『訓蒙字會』 서문의 첫머리를 통해서 『千字文』을 배운 후 『類合』의 순서대로 학습함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臣竊見世之敎童幼學書之家 必先千字 次及類合 然後始讀諸書矣 千字梁朝散騎常侍周興嗣所撰也 摘取故事 排比爲文 則善矣 其在童稚之習 僅得學字而已 安能識察故事屬文之義乎 類合之書 出自本國不知誰之手也 雖曰類合諸字而虛多實少 無從通諳事物形名之實矣 若使童稚學書知字 則宜知故事 又何假於千字之習乎 孔子曰 不學詩 無以言釋之者曰 多識於鳥獸草木之名 今之敎童稚者 雖習千字類合 以至讀遍經史諸書 只解其

(『訓蒙字會』引)

(신이 가만히 세상에서 어린이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는 분들을 보옵건대, 반드시 천자문을 먼저 가르치고 類合을 가르친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 책을 읽습니다. 천자문은 양나라 산기상시 주홍사가 편찬한 것인데, 고사를 잘 골라 취하여 배열하여 훌륭하게 이루어졌지만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데는 겨우 글자 배움을 얻을 따름이니 어찌 능히 고사에 숨겨진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까. 유합의 글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것이오나, 누구 손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여러 한자를 유별로 합했다고 말하나 허자가 많고 실자가 적어 사물의 이름이 나타내는 실체를 알 수 없으며, 만약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글자를 알게 하려면 마땅히 먼저 사물에 해당하는 글자를 적어서 견문과 이름이 나타내는 실체가 부합되도록 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글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사를 아는 일이, 무엇 때문에 또 천자문의 학습을 빌릴 것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를 해석하는 이가 새와 짐승과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되므로 그렇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은 천자문, 유합을 배우고 나서 경사와 여러 글을 두루 읽게 된다고 하지만 단지 그 글자만을 이해하고 그 사물은 이해하지 못하여 마침내 글자와 사물로 하여금 둘이 되어서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모두 통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개 글자만 외울 뿐 실체를 보기에 이르도록 힘쓰지 않은 탓입니다)[5]

최세진은 『千字文』에 대해서 고사를 적취하여 만든 것으로 문장으로서는 훌

5) 한문 원문의 각 용례에 대해 ( )로 현대국어 번역문을 싣는다. 번역문은 김진규(1993)를 따랐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륭한 것이지만, 처음 한자를 배우는 어린이들은 뜻을 알 까닭이 없다고 하여 한자의 기본 학습서로서 부적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類合』에 대해서는 “허자”가 많고 “실자”가 적어 사물 형태와 모양의 실상을 통해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여기서 이기문(1971:17-22)의 견해를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이 見聞하는 形名의 실상과의 부합을 통하여 사물에 해당되는 글자들을 먼저 깨닫고 한자를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의 교육 방법으로는 『千字文』과 『類合』을 배우고 經史 著書를 읽게 된다 할지라도 “글자만을 알고, 實物을 몰라, 드디어 글자와 實物이 둘이 되는”사실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자 교육은 경험 세계와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는 최세진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訓蒙字會』는 아동들이 글자는 익힐 수 있으나 뜻은 이해하지 못하는 『千字文』과 『類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 비판과 함께 이보다 더 효과적인 한자 학습의 대안을 제시한 조선시대 16세기의 문자 학습서인 것이다. 『訓蒙字會』의 편찬시기보다 『類合』이 앞선다는 것을 참조하고, 『訓蒙字會』와 『類合』 역시 『千字文』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訓蒙字會』 서지 및 체제

방종현(1954:79-80)은 현존하는 異本 15冊을 조사한 뒤 하권 末面의 第一行에서 第3字와 第4字가 瀰漫本과 洛汭本으로 구분하고 『訓蒙字會』 板本의 계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李秉岐本을 가장 古本으로 추정하였다.

(3)

第一期	第二期	第三期	第四期	第五期
	京大圖書館本	李仁策氏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李秉岐氏1本 ─ 舊王家文庫本 ─ 宋錫夏氏本
宋錫夏氏1本 ─ 方鍾鉉本

李秉岐氏2本
宋錫夏氏2本 ─ 光文會本

(방종현, 1954:80)

그러나 이후에 국내외에서 다른 異本이 발견되자 김근수(1971:191-192)는 『訓蒙字會』 판본의 계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第一期	第二期	第三期	第四期	第五期	第六期
乙亥字本					
↓					
文庫本					
↓					
徐氏本					
↓					
가람本	東國本	洛汭古本	臣濟本		光文會本
↓	一簑本A			延大本	
宋氏本	內腸本				
	一簑本B				

(김근수, 1971:192)

그리고 이기문(1971:48)에 의하면 일본의 叡山文庫本, 東京大學圖書館本, 尊經閣本, 그리고 국내의 奎章閣本, 汎文社本등의 異本을 고찰한 뒤 방종현의 『訓蒙字會』 板本의 계보도에서 第一期는 당연히 叡山本이 차지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계보도의 第一期는 第二期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기문(1971:48)에 의하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第二期에는 가람本이 발견된 지금 東中本을 이에 代置시킬 수 밖에 없게 되었고, 尊經本은 東中本보다 년대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第三期에 속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 계보도의 第二期는 第三期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5)

		서명	저자	책수	간행 년대	판본	규격(cm)
訓蒙字會	<1>	訓蒙字會	崔世珍 저	1책(59장)	간년미상 [1527년 (중종 22) 이후].	필사본	32×22cm.
	<2>	訓蒙字會	崔世珍 (朝鮮) 編	3卷1冊 (112張)	光海君5年(1613)	木版本	39.9×24.8㎝
	<3>	訓蒙字會	崔世珍 (朝鮮) 編	3卷1冊 (112張)	[18世紀 以後]	木版本	36.6×23.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1〉본, 〈2〉본, 〈3〉본은 같은 판본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데, 단 〈1〉본과 〈2〉본은 零本이며 〈3〉본은 완질본이다. 〈3〉본은 乾·坤 2책으로 乾 1책은 상편을, 坤 2책은 중·하편을 싣고 있다. 〈1〉본의 표지서명은 "訓蒙字會"이나 〈2〉본의 표지서명은 "訓蒙字會引"으로 후대에 잘못 붙여진 것으로 짐작된다. 〈1〉본과 〈2〉본에는 '京城大學圖書印'이 찍혀 있다. 〈4〉본은 필사본이며 완질본으로 한 페이지당 4자를 4행씩 배열한 위의 판본과 달리 한 페이지에 6字를 6행씩 배열하였다. 목차상으로도 <訓蒙字會引> 다음의 <凡例>, <諺文子母>, <平上去入定之圖>를 생략하고 바로 상·중·하편으로 들어 갔는데, 이는 한글의 양식과 용법 등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의 판본에 비해 〈4〉본이 후대에 나온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페이지에 黑虎 孟夏에 士靜이라는 인물이 필사하였다는 기록이 붙어 있으나 시기나 인물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京城大學圖書印'이 찍혀 있다.

『千字文』에는 처음 글을 배우는 학생이 익히기에는 어려운 한자가 수록되어 있고, 한자 배치도 학문에 입문하는 학생들이 익히기에는 어려운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訓蒙字會』는 『千字文』과 『類合』이 지닌 한계점을 고려하고 『千字文』과 『類合』에 대한 비판을 비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재를 편찬하는 데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訓蒙字會』가 기존 한자 학습서의 문제점에 어떻게 대응해 갔는지 전반적인 경향에 대해 기존 한자 학습 교재들의 구성을 보완하거나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訓蒙字會』가 가진 체제와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訓蒙字會』는 총 3,360개의 한자들로 체제는 訓蒙字會引, 凡例, 訓蒙字會目錄, 訓蒙字會上, 訓蒙字會中, 訓蒙字會下로 구성되어 있다. 訓蒙字會引, 凡例, 訓蒙字會目錄이라 하여 상권, 중권, 하권이 배열되었는데, 상권은 天文, 地理, 花品, 草莽, 樹木, 菓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蜫蟲, 身體, 天倫, 儒學, 書式이며, 중권은 人類, 宮宅, 宮衙, 器皿, 食饌, 服飾, 舟船, 車輿, 鞍具, 軍裝, 彩色, 布帛, 金寶, 音樂, 疾病, 喪葬이며, 하권은 雜語이다. 訓蒙字會引에서 편찬 동기, 한자교육의 이론, 순서에 따라 내용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訓蒙字會』의 序文인 訓蒙字會引에는 최세진이 『訓蒙字會』를 편찬하게 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기 및 편찬 방침 등이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동몽들의 교육에는 일반적으로 『千字文』, 『類合』과 같은 한자 교육용 책자를 거친 다음 비로소 여러 서적을 읽는 식이었다. 최세진은 이에 대해 『千字文』은 梁 周興嗣의 저술로 고사를 취하여 배열한 것은 매우 훌륭하나 동몽들은 글자만 익히고 뜻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類合』도 많은 글자들을 항목별로 모아 놓았으나 허구가 많고 실제가 적어 동몽들이 事物·形名의 실제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러므로 동몽들이 글자는 알지만 物의 실제는 알지 못하여 字와 物이 합치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訓蒙字會』를 편찬하였다. 특히 상권, 중권에서는 實字를 배열하며 하권에서는 半實半虛字를 배열하였는데, 이 경우는 상권, 중권에 일상생활의 實物에 대한 용어를, 하권은 행위, 사고 등에서 나오는 개념어를 의미한다.

凡例는 漢字 收錄의 原則, 音, 釋에 관한 원칙·자수의 편의도모·刊行·敎誨에 관한 것을 논한 다음, 諺文字母와 음에 관한 것으로 平上去入定位之圖(평상거입정위지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수록 한자의 음과 釋에 일일이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諺文字母를 실어 글자를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訓蒙字會』 凡例에 본문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

臣愚慮切及此 鈔取全資之字 編成上中兩篇, 又取半實半虛者 續補下篇 四字類聚 諧韻作書 總三千三百六十字 名之曰訓蒙字會

(『訓蒙字會』 凡例)

(전실지자를 모아 상 · 중 두 편으로 편성하였으며 또 반실반허자는 하편에 보충하였다. 4자씩 류별로 모아 운을 맞추어 지었다. 총 3,360자로 이름은 훈몽자회로 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물의 形名을 나타내는 구체적 글자를 鈔取하여 상권과 중권을 짓고, 다시 추상적인 글자를 골라 하권을 지었다.

凡例에서는 1조는 한자 수록의 자훈을, 2조에서는 註에 관련되는 것을, 3조는 同字異音에 관한 것을, 4조는 하권의 내용에 관한 것을, 5조는 한자음에 관한 것을, 6조는 釋에 관련되는 것을, 7조는 註에 관한 것을, 8조는 釋에 관한 것을, 9조는 諺文字母를 수록한 이유를, 10조는 編者의 희망에 관한 것으로 아동들에게 勸學에 대한 희망을 설명한다. 또한 諺文字母로 初聲終聲通用八字, 中聲獨用十一字, 初中聲合用作字例, 初中終三聲合用作字例와 平上去入定位之圖로 이루어져있다.

訓蒙字會目錄은 상권, 중권, 하권을 類別로 나열하였다. 상권은 天文, 地理, 花品, 草莽, 樹木, 菓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蜫蟲, 身體, 天倫, 儒學, 書式이며, 중권은 人類, 宮宅, 宮衙, 器皿, 食饌, 服飾, 舟船, 車輿, 鞍具, 軍裝, 彩色, 布帛, 金寶, 音樂, 疾病, 喪葬이며, 하권은 雜語로 수록하였다. 이에 상권이 구체적인 글자들을 16類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중권은 상권과 마찬가지로 16類로 구체적인 글자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하권은 상권, 중권과는 다르게 추상적인 글자를 雜語라 하여 1類의 項目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訓蒙字會目錄 이후에 본문에 해당되는 訓蒙字會上, 訓蒙字會中, 訓蒙字會下로 나누어 漢字의 釋과 音 그리고 註를 달았는데 위의 (1)凡例를 보면 상권과 중권에는 全實之字, 그리고 하권에는 半實半虛字로 분류하고 각 권에 16類로 類別하며 1,120字4씩 총 3,360字로 四字의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初刊本에 訓蒙字會上, 訓蒙字會中, 訓蒙字會下는 2字 혹은 5字씩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四字로 되지 않고 있는데 『千字文』이나 『類合』과는 다른 형식을 취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初刊本이후의 重刊때부터는 모두 板式이 四字類聚한 목판본이다.

初刊本 이외에 木版本은 한 장마다 4자를 4행씩 배열하였으며 각 자의 아래에 小字로 한글로 된 音訓 및 한자로 된 간단한 字義를 달았다. 四字씩을 유취하여 韻을 맞추어 글을 지었는데 수록 한자는 初刊本과 동일하게 上·中·下 각 권에 각 1,120자씩 총 3,360자로 배열되었다.

한자 학습서로 사용되었던 『千字文』, 『類合』 등은 한자교재 및 유학경전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유학교리 중심의 책들이었다. 이에 대하여 『訓蒙字會』는 기존 한자 학습서가 지니는 교과의 범주 측면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던 한자 학습서가 처음 한자를 배우는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낭비에 그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것은 多聞多讀多商量을 통해 文理를 터득하려는 교육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과 형식을 시도하여 교재의 내용과 형식을 조직하고자 했던 최세진의 의도는 이전과는 다른 교육목표를 가지고 다른 교재와 구별되는 내용과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본다. 특히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 『訓蒙字會』가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도입하여 편찬된 점을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보여준다.

첫째, 교재의 구성방식에 있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기존 한자 학습서로 사용해온 『千字文』, 『類合』에 비해 한자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訓蒙字會』는 전체적으로 유별화하여 의미를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상, 중, 하 세권의 책으로 구성하여 상권에서는 일면의 기본 한자를 제시하고 나열하였으며 한글을 제시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한자 활용을 꾀하고 있다.

둘째, 내용에 있어 유학 교리를 탈피하여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천문, 지리 등의 내용과 개인에 관한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한 부분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기존의 유학 교리를 기반으로 구성된 유교 중심의 학습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기존 한자 학습서는 중국 고사 위주로 한자 학습이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 중심의 내용에서 벗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맞는 한자 학습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자 학습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기존의 한자 학습서에서는 많은 책을 多讀하면 文理를 학습할 수 있고 作文도 할 수 있다고 하여 작문을 따로 敎授하지 않았다. 의미적 특성에 따라 학습자가 한자 학습을 보다 쉽게 익히고 혼돈하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어휘의 의미를 나뉘고 있다. 또한 항목의 배열 순서에 따라 한자 학습서를 살펴보면 『新增類合』과는 차이를 보이기는 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지만, 대체로 천문, 지리나 자연으로 순서를 배치함으로써 기존의 학습서와 크게 벗어나지 배열 순서를 통해 유사한 개념을 통해서 배우는 대상으로 하여금 기존 학습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항목의 명칭 역시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구성은 초학교육에서 글자를 가르칠 때 사물에 해당되는 글자를 먼저 알게 하려는 최세진의 의도로써 한자교육관까지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訓蒙字會』는 한자의 응용에 주력하여 한자의 연결 방식, 즉 학습하는 방식을 교사로부터 배우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한자를 처음 배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만든 교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당이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임과 동시에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재라고 할 수 있다. 최세진은 『訓蒙字會』에서 기존 한자 학습서와 다른 새로운 경향의 교재를 편찬하면서 체제나 내용을 갱신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또한 교과내용을 배열하고 조직하는 방식에서도 교육적 의의를 둔다. 『訓蒙字會』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윤리의식과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통해 언어생활에서의 실용성을 요구한다.

학습 교재는 외형적인 체제와 함께 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잘 정비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특성, 연령 및 학습단계와 수준을 고려해야하고,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있어서는 시대에 적합한 교육정신과 목표가 반영되어야 한다. 내용을 구성할 때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생 중심의 교과서가 되도록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좋은 학습 교재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訓蒙字會』를 통한 일련의 특징들은 『千字文』, 『類合』 등의 기존 한자 학습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보다 좋은 한자 학습을 교육하기 위한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訓蒙字會』의 편찬 구성은 단순히 기존 학습서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교재를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교육적 의의가 있겠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訓蒙字會』의 내용

3.1. 『訓蒙字會』의 문자 배열

『訓蒙字會』는 상권과 중권에서 16개의 항목으로 각각 1,120자가, 하권에는 1개의 항목으로 1,120자가 수록되어 있다. 한자의 배열은 4자를 4행씩 배열하고, 4자씩 운을 맞추어 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유별 분류 형식을 본따 4자씩 유취하여 33항목으로 구분하고 한글로 새김과 음을 단 것이 특색이다. 수록된 한자는 상권과 중권에서는 전실자(全實字)를, 하권에는 반실반허자(半實半虛字)를 실어 총 3,360자를 각 권에 나누어 실었다. 성조는 수록된 한자의 표제자에 권점으로 표시하고, 한글로 새김과 음을 달았다. 또한 성조는 『訓蒙字會』의 체제를 밝혀 적으면 다음과 같다.

(7)

上卷: 天文, 地理, 花品, 草卉, 樹木, 菓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蜫蟲, 身體, 天倫, 儒學, 書式

中卷: 人類, 宮宅, 宮衙, 器皿, 食饌, 服飾, 舟船, 車輿, 鞍具, 軍裝, 彩色, 布帛, 金寶, 音樂, 疾病, 喪葬

下卷: 雜語

(『訓蒙字會』)

이러한 (7)의 『訓蒙字會』의 체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관심을 가져 보고자 한다. 첫째는 어휘를 분류하는 기준과 그 항목의 배열 순서에 대한 것이다. 둘째는 각 항목의 한자들이 어떠한 의미관계에서 배열되어 있는가이다. 다음으로 셋째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訓蒙字會』에 나타난 3,360자의 한자 배열이 어떤 방식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가이다.

첫째, 어휘 분류 기준과 항목의 배열 순서에 대한 것은 당시 한자 학습서인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의 체제와 비교해 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8)

自然, 正史, 修學, 忠孝, 修德, 五倫, 仁義, 帝都, 功臣, 群雄, 地勢, 農政保身, 閑居, 食事, 安易, 雜事, 警戒[6)]

(『千字文』)

(9)

數目, 天文, 衆色, 地理, 草卉, 樹木, 果實, 禾穀, 菜蔬, 禽鳥, 獸畜, 鱗介, 蟲豸, 人倫, 都邑, 眷屬, 身體, 宮屋, 鋪陳, 金帛, 資用, 器械, 食饌, 衣服, 心術·動止, 事物

(『類合』)

(10)

上卷: 數目, 天文, 衆色, 地理, 草卉, 樹木, 果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蟲豸, 人倫, 都邑, 眷屬, 身體, 室屋, 鋪陳, 金帛, 資用, 器械, 食饌, 衣服

下卷: 心術, 動止, 事物

(『新增類合』)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訓蒙字會』,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은

6) 이돈주(1981:)에서는 천자문의 체제를 내용상 17부류로 보았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공통적으로 어휘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목록의 명칭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목록의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항목의 배열 순서가 『訓蒙字會』와 『千字文』에서는 天文, 地理, 自然 등이 앞에 나오고, 『類合』과 『新增類合』은 數目이 먼저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訓蒙字會』를 학습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숫자에 관한 개념보다는 天文에 관한 개념이 먼저 학습되어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 듯하다.

박금자(1995:320)에서는 『訓蒙字會』의 어휘 분류의 전통은 동아시아에서 발달한 한자의 분류 전통과 흐름을 같이 한다고 보였다. 즉, 국어 분류 어휘집의 전통은 『訓蒙字會』의 기원으로 알려진 『爾雅』를 참조한 흔적이 보이며, 중국의 한자학습서인 『急就篇』에서는 여러 사물의 이름을 나열하고 부류를 나누어 섞이지 않게 함으로써 항목별로 분류한 특색까지도 일치한다(임지룡 1989:414).

(11)

『急就篇』

錦繡, 飮食, 衣服, 臣民, 器物, 蟲魚, 服飾, 音樂, 形體, 兵器, 車馬, 宮室, 植物, 動物, 疾病, 藥品, 喪葬

(임지룡, 1989:415)

이상의 사실을 정리하여 보면 『訓蒙字會』의 체제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발달한 한자 분류 전통의 영향으로 『千字文』과 『類合』의 결함에서 비롯하면서 어휘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임지룡 1989:416). 『訓蒙字會』는 종래의 『千字文』과 『類合』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어휘분류 체계의 경우 단순히 글자만 알고 실물과 동떨어지게 됨을 막기 위하였다기보다는 분류를 도입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임지룡(1989:416)에 의하면 최세진은 한자를 전실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반실반허자, 허자의 3류로 나누고, 그중 실자를 중심으로 된 최초의 분류어휘집인 『訓蒙字會』의 가치는 글자를 의장별로 나누어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 한 점에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습서 목적을 가진 분류어휘집은 글자를 낱낱이 가르칠 때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類別로 분류한 것이다.

둘째는 각 항목 아래 한자 배열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訓蒙字會』 항목 아래의 한자 배열 방법을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방식은 항목의 표제어가 항목의 상위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항목에 속한 한자는 하위어를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花品, 草卉, 樹木, 菓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蜫蟲 등이다.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

花品: 芍藥薔薇, 葵梅蹢躅, 蓮荷芙蕖, 槿橓梔菊……

草卉: 芝蘭篁竹, 莞蓀菖蒲, 藍荻薰萑, 茨葭葦蘆……

樹木: 梧桐楊柳, 檜栢桂椿, 楓桑槩柘, 橦柷荊棘……

菓實: 李棕桃楙, 梨栗檎榴, 榛棗櫻杏, 芧橡栭梂……

禾穀: 麃麰蕎麥, 糜穄黍稷, 粳糯秈秫, 稻粱稗粟……

(『訓蒙字會』)

(12)花品의 경우를 보면, 花品이란 항목은 상위어가 되며, 그 항목에 속한 '芍藥薔薇 芍藥薔薇 蓮荷芙蕖 槿橓梔菊'의 한자들은 각각 하위어가 된다.

둘째 방식은 각 항목에 속한 한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위어, 전체어가 먼저 보이고, 하위어, 부분어는 뒤에 오는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地理, 身體, 食饌, 服飾 등이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3)

地理: 山嶽峯岫, 壑谷崖岸, 巖嶂嶺峴, 崗巔峒麓……

身體: 身貌肢體, 顔面形容, 頭首頂顋, 額顱頸頸……

食饌: 飯食饔飧, 餚饌饍饈, 餛飩餕餡, 餺飥饅餕……

服飾; 冠冕幞弁, 巾帽蚧幘, 袍裘衫裳, 靴鞋履舄……

(『訓蒙字會』)

가령 위의 (13) 예를 보면, 먼저 상위어인 山이 먼저 나오고 뒤에 하위어인 嶽, 峯, 岫과 山의 하위어인 壑, 谷, 崖, 岸 등이 나온다. 또 身體에서는 身이 나오고, 다음으로 頭가 나오는데 머리에 속해 있는 首, 頂, 顋이 나온다. 이로 보아 『訓蒙字會』의 각 항목 아래의 하위 분류의 특징은 항목이 전체어와 상위어가 앞서고 부분어나 하위어가 뒤따르는 것이다.

셋째는 목록에서 항목의 배열을 제외한 한자 각각의 배열을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것이다. 『訓蒙字會』는 4자씩 유별하여 서로 운을 맞추어 편찬되어 있다. 이러한 한자 각각의 배열은 그 연원을 시경에서 찾을 수 있다(이돈주 1985:391).

(14)

가.	春夏秋冬	/	晝夜寒暑
	晌晩昏暮	/	早晨曉曙
나.	虹霓蝃蝀	/	霖涑澇旱
	山嶽峯岫	/	壑谷崖岸
다.	堊素粉白	/	黧青黛黑
	玄皂丹雘	/	彤赭赭赤
	朱緋紅絳	/	黃紫綠碧

(『訓蒙字會』)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5)

가.	春夏秋冬	/	溫涼寒熱
	輪轉環迴	/	次第時節
나.	晝夜朝夕	/	曉宵翌昨
	旦暮晨昏	/	旬望晦朔
다.	一二三四	/	五六七八
	九十百千	/	萬億能察
	磁晝初知	/	筭數可達

(『新增類合』)

(14가)에서는 暑과 曙로, (14나)에서는 전 4행마다 각각 제2행과 제4행의 마지막 자가 운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訓蒙字會』의 전체를 볼 때도 4행을 기본으로 취하고 있으며, 운자는 원칙적으로 제2행과 제4행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14가)는 春夏, 秋冬, 晝夜, 寒暑, 晌晩, 昏募, 早晨, 曉曙로, (14나)의 경우는 虹霓, 蝃蝀, 霖涑, 澇旱, 山嶽, 峯岫, 壑谷, 崖岸 등으로 의미가 복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4다)는 예외적인 경우로 6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15)의 『新增類合』에서도 나타난다.

3.2. 『訓蒙字會』 수록 문자의 종류 및 특징

3.2.1. 한자 학습서 내 한자 사용

한자 학습서 중에서 교재 구성상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訓蒙字會』,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를 통해 학습서별 총 사용 한자 수, 영역별 사용 한자 수 그리고 품사별(동사, 명사, 형용사, 동사)사용 한자 수와 같은 내용을 통해 학습서 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학습서 한자 단어 사용수를 비교하여 어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하려한다. 즉, 한자 학습서 중에서 『訓蒙字會』,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 학습서 4종의 총 한자사용 수와 세부적으로 영역별 한자 사용 수, 품사별로 나누어 각각의 표를 통해 당대의 한자 학습서에서는 한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6)

구분	訓蒙字會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	계
총한자	3,360	1,000	1,512	3,000	8,872

(17)

구분	訓蒙字會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
분류체계	33	3	25	25

당대의 한자 학습서에서 사용된 총 한자 수는 8,872로 4종 학습서 중 『訓蒙字會』가 3,360자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그 뒤를 이어 『新增類合』(3,000), 『類合』(1,512), 『千字文』(1,000) 순이며, 가장 많이 사용된 『訓蒙字會』와 가장 적게 사용된 『千字文』은 2,360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자 학습서 4종 각각 영역별로는 한자 사용 수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되는 견해는 김종운(2001)을 참조하였다. 그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8)

영역	구분	訓蒙字會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
1	天文	天文(72)	天部(40)	數目(24)	數目(24)
2	地理	地理(136)	地部(96)	天文(104)	天文(104)
3	花品	花品(16)	人部(864)	衆色(16)	衆色(16)
4	草卉	草卉(64)		地理(56)	地理(56)
5	樹木	樹木(40)		草卉(48)	草卉(48)
6	果實	果實(40)		樹木(16)	樹木(24)
7	禾穀	禾穀(24)		果實(24)	果實(24)
8	蔬菜	蔬菜(64)		禾穀(16)	禾穀(16)
9	禽鳥	禽鳥(88)		菜蔬(24)	蔬菜(24)
10	獸畜	獸畜(64)		禽鳥(48)	禽鳥(56)
11	鱗介	鱗介(40)		獸畜(48)	獸畜(48)
12	蜫蟲	蜫蟲(104)		鱗介(16)	鱗介(64)
13	身體	身體(208)		蟲豸(24)	蟲豸
14	天倫	天倫(96)		人倫(40)	人倫(40)
15	儒學	儒學(32)		都邑(48)	都邑(56)
16	書式	書式(32)		眷屬(24)	眷屬(24)
17	人類	人類(112)		身體(56)	身體(72)
18	宮宅	宮宅(96)		宮屋(40)	宮屋(48)
19	官衙	官衙(88)		鋪陳(40)	鋪陳(40)
20	器皿	器皿(312)		金帛(24)	金帛(24)
21	食饌	食饌(80)		資用(24)	資用(24)
22	服飾	服飾(88)		器械(64)	器械(88)
23	舟船	舟船(32)		食饌(28)	食饌(32)
24	車輿	車輿(24)		衣服(32)	衣服(48)
25	鞍具	鞍具(24)		心術,動止(480)	心術
26	軍葬	軍葬(64)		事物(148)	動止(1496)
27	彩色	彩色(24)			事物(504)
28	布帛	布帛(24)			
29	金寶	金寶(32)			
30	音樂	音樂(16)			
31	疾病	疾病(80)			
32	喪葬	喪葬(24)			
33	雜語	雜語(280)			

*( )는 한자 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의 (18)과 같이 한자 학습서를 각 영역별로 나누어, 각각의 부류로 분류하고 한자 수를 정리하였다. 한자 학습서 4종 각각에서 사용된 한자 내 각각의 분류체계의 영역별로 나타낸 표이다. 각 학습서 분류체계 구성은 『訓蒙字會』 총 33부류, 『類合』 총 26부류, 『新增類合』 총 25부류, 『千字文』[7] 총 3부류로 구성되어 있다.

(19)

구분	訓蒙字會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	계
총한자	3,360	1,000	1,512	3,000	8,872
한자 내 天文	72	40	104	104	320

그러나 한자 내 天文 수는 (19)의 경우 『類合』, 『新增類合』, 『訓蒙字會』, 『千字文』 순으로 총 한자 수는 『訓蒙字會』가 『新增類合』보다 4%많으나, 天文 수는 『訓蒙字會』가 『新增類合』보다 10%적다.

각 학습서별로 학습서 전체 구성에서 天文 수가 차지하는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

訓蒙字會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
2.1%	4%	6.8%	3.4%

7) 실제 천자문은 분류체계의 특성이 없지만, 내용상 분류체계로 천, 지, 인의 3부류로 보았다(김종운, 2001:187). 이 견해와 달리 이돈주(1981)천자문의 내용상 분류체계를 17부류로 나누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에서 살펴보듯이 (20)경우는 한자 학습서 내 천문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학습서가 『類合』, 『千字文』, 『新增類合』, 『訓蒙字會』 순으로 위 표를 보면 특이한 점은 한자 사용 비율이 가장 많은 『訓蒙字會』와 한자 사용 비율이 제일 낮은 『千字文』이 총 한자 수가 가장 많은 『訓蒙字會』가 가장 적게 분류된 『千字文』보다 30부류가 더 많다. 또한 『訓蒙字會』는 분류 중 천문, 지리에서 시작하여 천륜, 유학, 서식으로 맺고 있는데, 『訓蒙字會』는 천문을 학습서의 처음부터 천문 한자가 도입되고 있으며, 『千字文』 역시 한자 도입이 되는 분류가 天부에 해당되는 반면에 2종 모두에게서는 한자 도입이 되는 부분이 數目으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訓蒙字會』와 『千字文』은 자연세계를 인지하기 위한 분류체계가 먼저 익히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 있고, 『類合』과 『新增類合』에서는 숫자의 개념을 먼저 익히기 위한 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견해로 김종운(2001:97-98)에서는 『類合』이 첫구부터 수목에 속하는 구절로 시작되어 수를 나열하여 숫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중국의 유학서의 차례와는 다른 특이한 배열로 어린 학습자에게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셈부터 익히고 추상적인 개념의 한자는 뒤로 돌려 수록하여 가르치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자 내 天文 수는 『類合』, 『千字文』, 『新增類合』, 『訓蒙字會』 순으로 총 한자 수는 『訓蒙字會』가 많으나, 학습서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다른 학습서보다 天文을 많이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類合』은 한자 도입이 되는 부분이 숫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학습서 내의 비율 정도를 고려할 때 『訓蒙字會』와는 반대로 天文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각 영역별로 영역의 한자 사용수를 한자 학습서 별로 분석해 본 결과 학습서 내 본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류체계를 정리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1)

訓蒙字會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
器皿(312)	人部(864)	心術, 動止(480)	心術, 動止(1496)

*( )는 한자 수

(22)

訓蒙字會	千字文	癒合	新增類合
花品(16), 音樂(16)	天部(40)	衆色(16), 樹木(16) 禾穀(16), 鱗介(16)	衆色(16), 禾穀(16)

*( )는 한자 수

위에서 (21)의 경우 한자 학습서 내 器皿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학습서는 『訓蒙字會』 순으로 한자 학습서 한자 총 사용 순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訓蒙字會』에서 사람의 사회 생활과 연관되는 구절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나타난 특성이. 최세진은 器皿, 書式, 食饌, 服飾 등의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되는 유형자 2,240자를 취하였는데 『訓蒙字會』 凡例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실지자라고 하여 이러한 특성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한자를 가르치고, 최세진이 생활 위주의 문자 교육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訓蒙字會』가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학습서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2%로 사용하고 있으나, '器皿'에 관한 한자는 다른 학습서에서는 한자가 전혀 없거나 비슷하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千字文』은 '人'에 관한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한 견해로 김종운(2001:90-91)에서는 『千字文』은 천지인의 공존을 위해서 자연 사물에 대한 공간 개념과 순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주로 나타내고, 『千字文』에서서의 전통적인 교육관인 충효 사상에 입각한 내용들로 아동들에게 바른 인성을 심어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고 도덕성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千字文』이 지닌 인성 교육에 주를 이루고, 『千字文』에 인에 관한 한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위의 표처럼 각 학습서 내에서 1% 정도의 한자 사용을 보이는 것 역시 수록한자의 중요도보다는 실생활의 관련되는 한자들을 익히도록 하는데에서 『訓蒙字會』의 器皿類나 『類合』 혹은 『新增類合』의 器械類와 食饌類, 衣服類와 같은 생활에 유용한 문자 교육이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花品, 音樂, 衆色, 樹木, 禾穀, 鱗介 등의 한자보다는 器皿, 器械, 食饌, 衣服 등의 실생활에 밀접한 한자가 다수 수록한데서 학습자 중심의 한자를 유별로 모으다보니, 이러한 내용들이 실생활에 널리 쓰이는 한자로 차이를 보인다 할 수 있겠다.

아울러 『訓蒙字會』에서는 인간이 몸으로 체험하는 자연의 사물과, 아울러 자연 규칙을 설명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반면에 중권은 人類, 宮宅에서 시작하여 疾病, 喪葬으로 맺고 있는데, 인간세계를 인지하는 분류체계이다. 그러나 『訓蒙字會』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하권의 雜語에 관한 고찰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김진규(1993)는 『訓蒙字會』에 관한 하권의 雜語에 관한 고찰로 하권을 단순히 상 · 중권에 수록된 한자와 연결되는 동사, 형용사로 설명한다. 이에 관한 견해로 김진규(1993)를 참조하여 품사별 사용 한자 수를 정리하였다.

『訓蒙字會』에는 매우 다양한 어휘들이 등장한다. 『訓蒙字會』 3,360자 가운데 품사를 분류하면 명사류 2,449자 동사류 698자 형용사류 186자 수사류 16자 대명사류 15자 부사류 4자이다. 김진규(1993)에서 제시한 품사별 字訓數는 다음과 같다.

(23)

품사	수록된 한자 수	제시 비율(%)
명사	2,449	72.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사	693	20.6
형용사	188	5.6
수사	16	0.5
대명사	14	0.4
계	3,360	100

(김진규, 1993:38)

위의 (23)품사 분류에서 보면, 김진규(1993)에서는 『訓蒙字會』에 학문 용어 등은 거의 없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주변의 어휘를 중심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기본어휘를 먼저 제시한 것은 아동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을 주기위한 목적이었고, 실제생활에서 사용빈도수가 많은 어휘들을 제시한 것은 실용적인 언어학습을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품사 분류로 볼 때 명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사, 형용사 순인데 이는 빠른 언어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 많이 쓰는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을 먼저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학습 과정에서 명사류를 먼저 학습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김진규(1993:39)는 『訓蒙字會』 전체 통계에서는 명사가 72.9%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동사, 형용사의 순이라고 했다. 이에 대하여 김진규(1993:39)는 최세진이 『訓蒙字會』를 실자 위주로 정리한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이며 당시 아동의 初學書로서 『千字文』, 『類合』의 부당성을 제시한 점에서도 드러난다고 했다.

(24)

구분	千字文		新增類合	
품사	수록된 한자 수	제시 비율(%)	수록된 한자 수	제시 비율(%)
명사	497	49.7	1518	50.6
동사	303	30.3	1001	33.4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형용사	158	15.8	45	13.8
수사	10	1.0	15	0.5
대명사	10	1.0	13	0.4
관형사	1	0.1	31	1.0
부사	12	1.2	2	0.1
조사	7	0.7	2	0.1
기타	2	0.2	0	0
계	1,000	100	2,627(3000)	99.9

(김진규, 1993:39)

위의 (24)를 살펴보면 『千字文』이나 『類合』에 수록된 한자 수가 명사가 차지하는 각각 49,7%와 50.6%로 50% 내외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25표)를 참조하면 『訓蒙字會』에서는 수록된 한자의 명사 비율이 72.9%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교적 허자가 많은 동사, 형용사의 경우는 『千字文』과 『類合』의 비율이 『訓蒙字會』보다 10% 이상의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김진규(1993:40-41)는 명사가 차지하는 비율과는 (23)와 (24)은 서로 반대되는 현상으로 동사, 형용사의 경우는 『千字文』, 『類合』이 30~33%, 형용사 13~16%인데 비하여 『訓蒙字會』에서는 동사 20.6%, 형용사는 겨우 5.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訓蒙字會』 凡例4조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25)

凡物名諸字 上中卷有所妨碍 未及收入者 又於下卷收之 其他虛字可學者雖多 今畏帙繁 不敢盡收

(『訓蒙字會』 凡例4조)

(무릇 사물의 물건 이름을 나타내는 여러 글자로서 상권, 중권에 넣기가 어려워 수록하지 못한 것은 하권에 수록하고, 다른 허자들도 공부해야 될 것이 비록 많으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제 책의 부피가 너무 두터워질까봐 모두 수록하지 못했다)

최세진은 상권과 중권에서 아동교육에 필요한 한자는 전실지자 위주로 정리하였지만, 이 정도의 어휘로는 부족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의 사용하는 어휘를 하권에 정리하고 雜語라는 목록으로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김진규 1993:41). 김진규(1993:41)에 의하면 당시 아동들의 한자 학습은 『訓蒙字會』의 상권, 중권의 내용으로도 충분하였겠지만, 지식인들을 위한 일상 어휘는 하권에 집중된다는 견해이다. 또한 雜語라고 칭하였지만, 잡다한 글자를 수록했다기보다는 당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가 『千字文』이나 『類合』보다 더 질서 있고 심도 깊게 정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고 하였다.

3.2.2. 한자 학습서 내 어려운 한자

앞서 『訓蒙字會』를 편찬한 최세진의 견해에서 살펴보았듯이 『訓蒙字會』는 『千字文』과 『類合』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한 학습서이다. 최세진은 『千字文』이나 『類合』 모두 아동들이 한자를 입문하기 위한 학습서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千字文』에서는 고사나 문장 중심으로 아동들이 접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類合』은 유별로 분류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자가 적고 수록한자가 1,512자에 불과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자 학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최세진은 訓蒙字會引에서 밝힌 것과 같이 『訓蒙字會』는 체계적인 내용 체제를 갖추고 한자 학습서의 획기적임을 소개하고 있다. 최세진은 일상생활과 연관되는 2,240자를 전실지자라 이름하고 상권과 중권에 수록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하권에는 雜語라 하여 1,120자의 반실반허자를 수록하였다. 『訓蒙字會』에 수록된 한자 3,360자에 해당되는 문자교육 학습서로 『千字文』보다 2,360자가 많고, 『新增類合』보다는 360자가 많다. 이렇게 많은 한자를 수록한 『訓蒙字會』의 학습서의 구성이 『新增類合』에 비해 어떤 점이 강화되었는지 색채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살펴보기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다.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 김종운(2001)의 일부를 정리하여 옮겨 오기로 한다.

(26)

堊素粉白, 黷靑黛黑, 玄皂丹雘, 彤赭赬赤, 朱緋紅絳, 黃紫綠碧

(『訓蒙字會』 彩色)

(27)

靑黃赤白, 碧綠玄黑, 朱翠紅紫, 輝映衆色

(『新增類合』 衆色)

위의 (26)에서 『訓蒙字會』의 彩色 항목을 보면 색채를 나타내는 한자가 총 6구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27)의 경우 색채를 나타내는 한자 수가 『訓蒙字會』보다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訓蒙字會』가 『新增類合』보다 색을 나타내는 한자를 더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한자의 수준은 더욱 어렵고,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訓蒙字會』의 服飾과 『新增類合』의 衣服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8)

冠冕幞弁, 巾帽价幘, 袍裘衫裳, 靴鞋履舄, 裙裙裩袴, 韈鞘襞襩, 袪袂袵袖, 袉襠楦屐, 帕帨衾被, 紳帶銙革呈, 笏佩絛縫, 紐 紒 緌纓, 袈裟衲襖, 襁褓襦棚, 領襋襟衽, 袂褌縕襺, 絲線縷纑, 纊絮綿繭, 簪笄鎞釵, 珥璫釧環, 脂膏臙赦, 髮髻髻鬃

(『訓蒙字會』 服飾)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9)

冠冕袞衫, 衣裘袍衾, 簪纓巾蹟, 珥墻芾幅, 襦襖紐裳, 裙袴棍襠, 紳帶帽笠, 襪鞵韡韈, 印笏組璜, 鞍轡袋囊, 鞘鞭釧釵, 服飾光華

(『新增類合』 衣服)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김종운(2001:70)은 『新增類合』에서는 12구로 『訓蒙字會』는 22구로 많은 양을 수록하고 있고, 『新增類合』과는 달리 어려운 한자를 수록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종운(2001:70)은 『訓蒙字會』는 3,360자에 해당되는 한자는 『千字文』에서 찾아볼 수 없는 433자가 되는 등 기초적인 한자가 많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동일한 견해로 이기문(1971:)에서도 『訓蒙字會』가 한자 입문서로서 초보자에게 필요한 기초적인 한자들이 부족하고 『千字文』에서의 433자가 빠져있음이 주목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訓蒙字會』의 구성상의 특징은 일상생활에서 관련되는 전실지자 중심으로 되어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訓蒙字會』는 한자를 類別로 의미가 유사한 한자를 모아 놓았으며, 글자의 배열이 四字成句를 취하였다는 점은 송독암송에 편리한 형식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3.3. 『訓蒙字會』 한자 새김의 종류 및 특징

김원기(2002:6)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한자를 지칭할 때 뜻과 음을 결합하여 관습적으로 불러왔다. 이 때 음은 중국의 원음을 모태로 하여 우리 음운체계에 맞게 붙였다. 그러나 뜻풀이, 새김은 한자 학습과정에서 우리 조상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한자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어 그 새김은 여러 가지로 붙여질 수 있다. 그런데 한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는 그 많은 새김들은 초학자에게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된다. 한자의 대표적인 의미 하나만을 제시하는 것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원래 한자는 一字一意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 졌으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本義 외에 여러 뜻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여러 뜻 중에서 한자 학습서등에 한자의 뜻으로 표시된, 그 한자를 대표하는 새김을 대표새김이라 했다. 이기문(1971)에서는 새김의 표기방법, 특징, 이본과의 차이 등으로 새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한자의 대한 새김을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단일새김과 복수새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일새김은 한 글자에 하나의 새김이 달린 것이고, 복수새김은 한 글자에 둘 이상의 새김이 달린 것이다.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이기문(1971)의 일부를 정리하여 옮겨 오기로 한다.

3.3.1. 단일새김

한자 학습서에서는 한 한자에 하나의 새김이 달린 단일새김 방식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한자 학습서로서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한자를 익히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한자에 대한 여러 의미를 익히게 하는 것보다는 한 한자에 한 새김을 제대로 알고, 한 새김만이라도 익히게 하는 것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자료인 『訓蒙字會』와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16세기 한자 학습서인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을 보아도 그러한 경향이 일치한다. 그리고 『千字文』과 『類合』에는 단일새김만 나타나며, 『訓蒙字會』는 3,360자 중에서 3,312자가 단일새김이 나타나므로, 『訓蒙字會』는 단일새김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된다.

한자 학습서의 학습 대상이 한자를 처음 배우는 어린 아동 학습자였기 때문에 『訓蒙字會』,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에서 나타나는 단일 새김은 그 당시에 두루 쓰이던 가장 대표적인 새김을 가르쳐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訓蒙字會』에는 대표적인 새김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예가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0)

한자	訓蒙字會	광주판千字文	新增類合
曲	놀애곡	고ㅂ、ㄹ곡	고ㅂ、ㄹ곡
閑	멀험한	겨를한/겨ㄹ、한	겨를한/겨ㄹ、한
履	신리	ㅂ、ㄹ올리	ㅂ、ㄹ올리
磨	매마	ㄱ、ㄹ마	ㄱ、ㄹ마
鳴	우룸명	울명	울명
張	활지흘댱	베플댱	베플댱
翠	쇠새ㅊㅟ	프를ㅊㅟ	프를ㅊㅟ

(이기문, 1971:113)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기문(1971)은 曲의 경우를 『訓蒙字會』에서는 '놀애'의 새김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자 학습서와 비교해 보면 상용새김은 '고ㅂ、ㄹ'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閑의 경우에서도 『訓蒙字會』는 '멀험'의 새김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자 학습서에서는 '겨를, 겨ㄹ、ㄹ'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자 새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시의 상용새김을 재구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訓蒙字會』에서 상용새김을 달지 않은 원인을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訓蒙字會』의 한자 구성이 복합사를 가르칠 목적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즉 복합사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상용새김이 아닌 문맥새김을 사용한 것이다. 曲은 '놀애'로 되어있는데, 다른 문헌의 새김을 살펴보면, 상용새김은 '고ㅂ、ㄹ'임을 알 수 있다. 曲이 쓰여진 문맥을 살펴보면 樂曲吹唱로 樂曲(노래 부르다)를 나타내려 했기에 새김을 '고ㅂ、ㄹ'보다는 '놀애'로 사용한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둘째, 상용새김과 유의적 관계에 있는 어휘가 대신 사용되면서 상용새김이 달리지 않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訓蒙字會』의 새김과 다른 문헌에서 나타나는 새김은 유의적 관계에 있다. 曲, 閑, 履, 磨, 鳴, 張, 翠 등이 이에 해당한다.

3.3.2. 복수새김

복수새김이란 하나의 한자에 두 개 이상의 새김이 달려 있는 것이다. 『訓蒙字會』에는 48개(1.4%)의 복수새김이 있다. 이는 『新增類合』의 192개(6.4%)에 비하면 5배에도 못미치는 숫자이며, 『千字文』과 『類合』에는 단 하나의 복수새김도 나타나지 않는다. 복수새김의 경우 앞에 오는 새김을 문맥새김, 뒤에 오는 새김이 상용새김이라는 견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기문(1971: 108-112)의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 일부를 정리하여 『訓蒙字會』에 나타나는 복수새김을 제시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31)

辰	별신…又미르진
關	모개관又다ㄷ、ㄹ관
蜿	ㅊ、ㄹ콩완一元 강남콩완
鸂	믓ㄷ、ㄹ계 本國又呼듬브기계
心	념통심又稱ㅁ、ㅿ、ㅁ심
姑	아ㅈ、미고 …國語할미고
禮	례수례又절례
箋	글월젼又죠ㅎㆍ|젼

湯	탕탕 又더울탕
巾	고갈건又슈ㄱㅓㅅ건
領	옷깃령又목령
襟	옷깃금 又기슬금
磬	셕경경又경ㅈ、ㅅ경
蠱	좀고 …又노올고
痣	사마괴지又기믜지
賦	ㅌㆍ|올부 …又공셰부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嬪	빙 …又며느리빙	種	시믈죵 …又上聲ㅃㅣ죵
儲	여툴뎌又ㅁ、딜뎌	淡	슴거울담又ㅁ、ㄹ글담
相	ㅈ·ㅣ샹샹本平聲 셔르샹	交	섯글교又사괼교
將	쟝슈쟝又平聲 쟝ㅊ、쟝	紡	사믈방又ㅈ、ㅿ、ㄹ방
道	도ㅅ、ㅅ도 -又도릿도 又길도	絡	ㄴ、릴락又더늘락
寢	몸채침 …國語잘침	輸	옴길슈又몯이긜슈
門	문문 …國語오래문	嬴	ㄱ、ㄷ、ㄱㅎ、ㄹ영又이긜영
扃	쟝군목경又다ㄷ、ㄹ경	捧	우훔봉 …又받들봉
署	마ㅿ、ㄹ셔 …又쳐서	摟	후리ㅃㅡㄹ루又아ㄴ、ㄹ루
曺	마ㅿ、ㄹ조 …又물조	排	버릴ㅂ·ㅣ又베와ㄷ、ㄹㅂ·ㅣ
都	도읍도 又모들도	每	물ㅁ·ㅣ -又上聲 -ㅢㅿㅡㄹㅁ·ㅣ
鋪	역푸 …又군푸	義	마ㅈ、ㄹ의 又本國俗釋글의
觀	집관 …又平聲볼관	是	올ㅎ、ㄹ시又이시
鑊	솓확又가마확	非	욀비又안득비
蓋	갯걔 …又두플개	毁	헐ㅱㅡ릴훼又헐훼
幔	댱만 …又ㅁㅜㅅ댱만	濟	거느릴졔又건널졔

(이기문, 1971:110-111)

위의 견해는 모두 세로에 새김과 음이 병기되어 있다. 성조가 바뀌는 경우는 권점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음 옆에 바뀐 성조를 표기한다. 점이 있는 것과 없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것, 많음과 적음으로 결정이 되는데, 낮은 소리의 글자는 평성인데 점이 없고, 낮다가 나중을 높이는 글자는 상성인데 점이 둘이고, 곧고 바르게 높은 글자는 입성인데 점이 하나가 된다. 行이 '가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평성이 원래음, 行이 '행적'으로 쓰일 때는 거성임, 行이 '저자'의 의미로 쓰일 때는 평성으로 '항'으로 소리로 본래의 소리를 두고 다른 뜻이나 다른 소리로 사용되면 다르게 사용되는 소리로 글자의 뜻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위의 견해와 같이 『訓蒙字會』에 복수새김이 달리게 된 이유를 정리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는 『訓蒙字會』의 체제가 4자 1구로 만들었고, 또한 복합사를 가르치기 위해 편찬된 것이다. 복합사에 관계되는 문맥새김을 달다보니 실제 생활에 많이 쓰이는 상용새김을 달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복수새김이 달리게 된 것이다.

(32)

한자	訓蒙字會	광주판 千字文	석봉千字文	類合	新增類合
心	념통심/稱ㅁ、ㅿ、ㅁ심	ㅁ、ㅿ、심		稱ㅁ、ㅿ、ㅁ심/념통심	
寢	몸채침 …國語잘침				잘침
門	문문 …國語오래문	오래문			문문
蓋	갯개/두플개	두웨개	두풀개	개 개 / 두 풀 개	
湯	탕탕/더울탕	더올탕	ㅅㅣㅡㄹ흘탕		글흘탕
交	섯글교/사괼교	사괼교			사괼교
義	마ㅈ、ㄹ의/本國俗釋클의	클의	올ㅎ、ㄹ의		ㅁ、ㄹ、의
是	올ㅎ、ㄹ시/이시	이시	잇시		이시/올흘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非	욀비/안득비		아닐비		아닐비

(이기문, 1971:110-112)

이와 같은 방식을 是의 문맥의 경우에 살펴보면, 是非枉直이므로 문맥새김은 '올ㅎ、ㄹ'이다. 그러나 是의 상용새김은 다른 문헌의 새김을 살펴본 결과 '이'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보인 경우는 모두 문맥새김을 사용하다 보니, 드러낼 수 없었던 상용새김을 복수새김 방식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 문자 학습서『訓蒙字會』 분석

4.1. 『訓蒙字會』와 한글 학습

『訓蒙字會』에 실려 있는 3,360자의 한자에 대한 음과 새김은 우리말로 표기되어있다. 세종이 1443년 『訓民正音』을 창제한 지 3년이 지난 1446년 9월에 이를 세상에 반포한다. 『訓民正音』 반포 후 80년 뒤에 최세진이 지은 『訓蒙字會』는 학자 학습서라는 저작의도에도 불구하고 약 3,000여 단어가 우리말로 표기되어있다. 그러나 김진규(1993:163)는 『訓蒙字會』보다 먼저 저술된 『訓民正音』 해례(1446)에 우리말 어례가 100여 단어에 그친 데서 『訓蒙字會』는 수록된 한자를 해설한 어휘를 통해 16세기 중세국어를 이해하는 문헌이라고 하였다.

訓蒙字會引과 凡例에 나타나는 한글의 문자교육적 측면과 자모의 배열의 이론은 현대국어 문자교육의 기본이 됨은 물론이거니와 『訓民正音』 해례본과의 이론적 차이도 관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訓蒙字會』 凡例의 내용을 살펴보면, 凡例는 10조로 되는 본문, 諺文字母와 平上去入定位之圖의 세부분으로 되어있다. 範例 10조는 『訓蒙字會』를 교육하는 사람들이 알아 두어야 할 편찬 원칙을 담고 있고, 平上去入定位之圖는 성조에 관한 내용이다.

16세기의 언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한문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 어문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訓民正音』을 활용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자의 음과 釋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訓民正音』의 사용 방법을 먼저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당시에는 아직 『訓民正音』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새 문자를 수용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諺文字母는 『訓民正音』의 자모와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함을 알 수 있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3)

凡在邊下邑之人 必多不解讓文 故今乃弁著讓文字母 使之先學 諺文 次學字會 則庶可有曉海之益矣 其不通文字者 亦皆學該而知字 則雖無師授 亦將得爲通文之人矣

(『訓蒙字會』 凡例)

(무릇 변두리 시골에 잇는 무식한 사람은 언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곧 언문자를 같이 적어 그들로 하여금 언문을 먼저 배우게 하고 다음에 훈몽자회를 배우게 한 즉 거의가 깨우칠 수 있는 이로움이 있고, 문자를 통하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언문을 다 배우고서 글자를 알게 한 즉, 비록 스승에게 배우지 않더라도 역시 장차 문장을 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그토록 바라던 문자가 생겼지만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한자를 통하여 어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訓民正音』이라는 새 문자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문헌이 필요했을 것이다. 『訓民正音』이 창제되었지만 당시에는 『訓民正音』이 활용되지 못해서 『訓民正音』으로 한자의 음과 釋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訓民正音』의 사용 방법에 대해 먼저 가르쳐야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訓民正音』은 諺文字母의 내용을 이해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글자이며, 이것을 사용하면 어려운 한자도 혼자 익힐 수 있다.

『訓民正音』을 배우면 스승 없이도 한문을 배워서 통달할 수 있고 한문 공부를 위해서라도 『訓民正音』을 배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기 부여가 확실해졌으니, 『訓民正音』을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도 필요했을 것이다. 『訓蒙字會』는 백성들에게 『訓民正音』을 널리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訓蒙字會』의 교육적 가치는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訓蒙字會』는 『訓民正音』을 쉽게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는 대상이 되기에 『訓蒙字會』가 가질 수 있는 교육적 의의가 남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세진은 『訓民正音』이 쉬운 글자이며, 유용한 글자임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凡例를 통해 諺文字母를 수록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병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985:798)에 따르면, 최세진이 『訓蒙字會』의 범례 끝에 언문자모를 붙인 이유는 월인석보의 권두에 『訓民正音』 언해를 실은 것과 같은 의도에 의한 것으로 새로 만든 책에 사용된 문자에 대한 소개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기문(1971:49)은 『訓蒙字會』의 凡例 뒤에 諺文字母가 수록되어 있는데 부록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했고, 박병채(1972:196)는 凡例에 병서언문자모라고 한 것을 보면 독립된 부분이라고 했지만, 『訓蒙字會』의 凡例 뒤의 諺文字母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訓民正音』의 사용법에 관한 설명으로 몇 가지의 원리방식을 통하여 스스로 글자를 일깨우는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면 諺文字母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이기문(1971)의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34)

諺文字母를 달게 된 理由는 凡例의 附錄으로 설명한다. 시골 사람들 중에는 언문을 깨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고, 16세기 전반에 있어서의 『訓民正音』의 普及 狀況에 대한 드문 證言의 하나다. 그때만 해도 『訓民正音』의 普及이 地城的으로 매우 제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기문, 1971:55)

위의 (34)견해는 어느 경우로 파악하든 일반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는 백성뿐 아니라, 문자를 배우고자하는 사람들에게도 『訓民正音』의 용도를 확대하여 『訓民正音』을 배우고자하는 동기를 강화시켰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위의 견해와 같이 『訓民正音』을 효과적으로 쉽게 익히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한 점에서 『訓蒙字會』의 가치는 『訓民正音』의 보급 측면에서 『訓民正音』의 용도를 확장시켰다.

『訓蒙字會』 凡例에 실려있는 諺文字母의 자모 배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5) 諺文字母 俗所謂反切二十七子

가. 초성종성통용팔자(初聲終聲通用八字)

ㄱ其役	ㄴ尼隱	ㄷ池末	ㄹ梨乙
ㅁ眉音	ㅂ非邑	ㅅ時衣	ㅇ異疑

末衣兩字只取本字之釋俚語爲聲

其尼池梨眉非時異八音用於初聲

役隱末乙音邑衣疑八音用於終聲

(『訓蒙字會』 凡例)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末 衣 두 자는 다만 그 글자의 우리말뜻을 취해 사용하였다.

기 니 디 리 미 비 시 이 8음은 종성에 사용되었고, 역은 귿을 음 읍옷 응 8음은 종성에 사용되었다.)[8]

나. 초성독용팔자(初聲獨用八字)

ㅋ箕	ㅌ治	ㅍ皮	ㅈ之
ㅊ齒	ㅿ而	ㅇ伊	ㅎ屎

箕字亦取本字釋俚語爲聲

(『訓蒙字會』 凡例)

(ㅋ키 ㅌ티 ㅍ피 ㅈ지 ㅊ치 ㅿㅿㅣ ㅇ이 ㅎ히

箕자 역시 이 글자의 우리말 뜻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다. 중성독용십일자(中聲獨用十一字)

ㅏ阿	ㅑ也	ㅓ於	ㅕ余
ㅗ吾	ㅛ要	ㅜ牛	ㅠ由

8) 한문 원문의 각 용례에 대해 ( )로 현대국어 번역문을 싣는다. 번역문은 김진규(1993)를 따랐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一應 不用終聲　　ㅣ伊 只用中聲

・思 不用初聲

(『訓蒙字會』 凡例)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一응에서 종성은 사용하지 아니함, ㅣ이에서 다만 중성만 사용함)

라. 초중성합용작자예(初中聲合用作字例)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ㄱ、

以ㄱ其爲初聲以ㅏ阿爲中聲合ㄱㅏ爲字則가此家字音也又以ㄱ役爲終聲合가ㄱ爲字則각此各字音也餘倣此

(『訓蒙字會』 凡例)

(ㄱ초성에 중성 ㅏ를 합하여 '가'자가 된 즉 가자음이 되고, 또 ㄱ음을 사용하여 종성에 합하여 쓰면 각자음이니 나머지 것도 이와 같이 모방하였다.)

마. 초중종삼성합용작자예(初中終三聲合用作字例)

간肝갇笠갈刀감柿갑甲갓皮강江

ㄱㅋ下各音爲初聲　ㅏ下各音爲中聲作字如가갸例作一百七十六字以ㄴ下七音爲終聲作字如肝至江七字

(『訓蒙字會』 凡例)

(ㄱㅋ이하 각 음이 초성이 되고, ㅏ 이하 각 음이 중성이 되어 글자를 만든 것이 '가,갸'와 같은 예로 176자를 만들 수 있다. ㄴ 이하의 7음을 종성이 되게 하여 글자를 만든 것은 간에서 강까지 7자이다.)

바.

唯ㅇ之初聲與ㅇ字音俗呼相近故俗用初聲　則皆用ㅇ音若上字有ㅇ音終聲　則下字必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用ㆆ音爲初聲也ㆆ字之音動鼻作聲ㆆ字之音發爲喉中輕虛之聲而已故初雖稍異而大體相似也漢音ㆆ音初聲或歸音於尼或ㆆㅇ相混無別

(『訓蒙字會』 凡例)

(오직 ㆆ의 초성과 ㅇ자음을 세간에서 서로 비슷하게 부르기 때문에 세간에서 초성으로 쓰인 즉 모두 ㅇ음을 사용할 것이며, 만일 위의 글자가 ㆆ음으로 종성이 되어 아래 글자에 사용되면 반드시 ㆆ음으로 초성이 되게 할 것이다.ㆆ자의 소리는 목구멍에서부터 나는 것으로 가볍고 허한 소리가 된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달라도 대체로 비슷하다고 본다. 한자음의 ㆆ음 초성은 혹은 이음이 되든지 혹은 ㆆ과ㅇ이 서로 섞여 구별이 되지 않는다.)

(35가)는 초성과 종성으로 두루 쓰이는 8글자를 든 것이다. 각각 초성에서 쓰였을 때의 음가와 종성에서 쓰였을 때의 음가이다. 초성과 종성을 예시하는 글자는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글자의 이름으로 굳어졌다. 각 자음에 모음 'ㅣ'와 'ㅡ'를 결합시켜 기본음으로 삼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윽, 읃, 읏'에 해당되는 음을 사용한다. 그런데 한자에는 '윽, 읃, 읏'의 음가를 제시하는 글자가 없어 役, 末, 衣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자음의 배열의 순서에 있어서는 『訓民正音』의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을 따르는데 김진규(1993)에서 자세히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36)

	訓蒙字會(16자)		訓民正音(17자)	
조음기관	초종성통용	초성독용	기본자	
아음	ㄱ	ㅋ	ㄱ	ㅋㆆ
설음	ㄴㄷㄹ	ㅌ	ㄴ	ㄷㅌ
순음	ㅁㅂ	ㅍ	ㅁ	ㅂㅍ
치음	ㅅ	ㅈㅊㅿ	ㅅ	ㅈㅊ
후음	ㅇ	ㅇㅎ	ㅇ	ㆆㅎ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반설음			ㄹ	
반치음			ㅿ	

(김진규, 1993:168-172)

자음의 배열을 보면, 『訓民正音』은 조음기관에 중심이었고, 『訓蒙字會』는 초성과 종성에 쓰이는 여부에 따라 구별하여 배열법을 사용하였다. 『訓蒙字會』 凡例의 초종성통용 자음 음가는 발음의 편의가 고려되었고 발음이 선명하여 음운적 조건이 충분히 감안된 매우 논리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국어연구소 1988). 『訓蒙字會』에서는 자음 배열의 순서를 『訓民正音』의 조음기관에 따르고, 초성에 쓰이는가 종성에 쓰이는가에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을 고려할 때 초종성통용과 초성독용의 순서가 상당히 효율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할 때에도 『訓民正音』의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에 따른 순서인 'ㄱ, ㅋ, ㆁ, ㄷ, ㅌ, ㄴ' 등의 순서가 아니라 현재와 같은 'ㄱ, ㄴ, ㄷ' 등의 순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단지 음가의 설명으로 그쳤으나, 이후에 자음의 명칭이 되고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데에서 『訓蒙字會』의 탁월성을 확인하게 된다.

(35나)는 초성으로만 사용되는 8자를 제시하였다.

(37)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 象舌附上腭之形 脣音ㅁ 象口形 齒音ㅅ 象齒形 喉音ㆁ 象喉形 ㅋ比ㄱ 聲出稍厲 故加畫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ㅅ而ㅈ ㅈ而ㅊ ㆁ而ㆆ ㆆ而ㅎ 其因聲加畫之義皆同 而唯ㆁ 爲異 半舌音ㄹ 半齒音ㅿ 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 無加畫之義焉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초성은 17자이다.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모양을 본떴고, 설음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은 모양을, 순음 ㅁ은 입의 모양을, 치음 ㅅ은 이의 모양을, 후음 ㆁ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ㅋ이하는 소리가 조금 세기 때문에 획을 더한다. 아음 ㆁ과 반설음 ㄹ, 그리고 반설음 ㅿ이 나머지 석자에 해당한다. 이것을 이체자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반설음 ㄹ과 반설음 △역시 혀와 이의 모양을 본 떴지만 그 예를 달리하기 때문에 획을 더한 듯 없이 ㄹ와 △를 만들었다.)[9]

위의 글에서 김진규(1993:167-173)는 초성의 생성은 발음기관을 상형한 5개의 기본자라하였고, 이 기본자에 가획에 의해서 받침으로는 쓸 수 없는 8자를 제시하여 받침으로 사용이 가능한가라는 실용성이나 현실성이 고려된 방법이라고 보았다.

(35다)에서도 ㅏ, ㅑ, ㅓ 등의 순서로 제시된다. 『訓民正音』 ·, ㅡ, ㅣ, ㅗ, ㅏ, ㅜ, ㅓ의 순서가 『訓蒙字會』에서는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중성의 음가를 내는 阿, 也, 於 등이 오늘날에 중성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35라)는 자음과 모음을 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모음의 배열에서는 『訓蒙字會』와 『訓民正音』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38)

訓蒙字會	장구자	→	촉구자	→	기본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訓民正音	기본자	→	초출자	→	재출자
	·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김진규, 1993:173)

위에서 초성을 각 모음과 합자하면 (35라)의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ㄱ、'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초성에 모음을 합자하면 反切이 된다. (35마)에서 설명한 '肝笠刀柿甲皮江' 등은 '가'에 8종성이 결합한 예이다. (35바)는 초성의 'ㆁ'이 'ㅇ'과 비슷하여 초성에서는 모두 'ㅇ'을 쓰고 앞에 나오는 글자의 종성이

9) 한문 원문의 각 용례에 대해 ( )로 현대국어 번역문을 싣는다. 번역문은 김진규(1993)를 따랐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ㅇ’일 때 뒷에 나오는 글자의 초성에 ‘ㅇ’을 쓴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이기문(1971:59)에서는 ‘ㅇ’을 初聲終聲通用八字에 넣고 있는데 16세기에 들어서는 거의 초성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종성독용일자라고 하였다.

4.2. 『訓蒙字會』와 한자 및 한자어 학습

16세기에 아동들이 한자를 습득하기 위해서 편찬된 『訓蒙字會』는 학습자를 고려할 때 한자 학습서로서 담고 있는 내용뿐 만 아니라 교재의 구성 방식과 내용 전개 양상을 보인다. 『訓蒙字會』가 4자구조적 양상을 띠면서 아동 학습자에게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한자 학습을 유리하게 하는 구성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千字文』과 『類合』의 결합을 보충하고, 실체를 나타내는 글자를 우선시하며, 수록된 한자의 類別 분류하여 제시 하는 등 아동들을 학습 부담감으로부터 배려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한자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전개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4.2.1. 한자의 구조를 활용한 한자 및 한자어 학습

아동 학습자에게 있어서 한자, 한자어의 의미는 어떠할까? 학습자들이 한자 학습서에서 어휘를 익히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한자어를 접하고 그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한자어를 낱낱의 한자로 나누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를 거치게 될 것이다. 특히 초급 단계를 배우고 다음 단계로 이어질 경우는 학습자들에게 어휘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한자어의 학습 부담과 함께 어휘 학습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학습자들은 초급 단계에서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 한자어의 구조를 접하면서 흥미를 가지거나 의문점을 제기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10]아동 학습자들은 한자 학습은 한자 자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으므로

10) 한자 낱낱의 학습을 한자 학습, 한자를 포함한 어휘 학습을 한자어 학습으로 구분하고자 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자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 않는다면 어휘 학습에서 한자어를 무조건 암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견해에 대하여 한예원(2014)를 참조하였다.

한예원(2014:272)은 한문은 한자가 의미체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최소의 단위를 單體字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부터 2자, 3자 등 여러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문장을 이룬다고 하였다. 한자 학습은 우선 기본적인 문장구조, 또는 최소한의 글자 수로 이루어진 기본 문장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복잡한 문장 구조, 또는 많은 수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한예원 2014:272). 다음의 예를 보자.

(39)

가. 山高(산이 높다)
나. 月白(달이 희다)
다. 靑山高(푸른 산이 높다)
라. 山月孤白(산위의 달이 외롭게 밝다)

(한예원, 2014:272)

위의 (39가, 나)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 구조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졌다. 山와 高는 문장구조의 필수성분인 주어+서술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39다, 라)는 부속성분의 수식어가 첨가되면서 3자 또는 4자의 문장으로 확장되었다.

『訓蒙字會』는 『千字文』의 난해함을 해소하고 『類合』의 허자를 극복하기 위해 실자중심의 四字類聚 형식으로 상중하 3권을 편찬하여, 유별학습을 권장하였다. 『訓蒙字會』는 아동들이 알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 구성상 상권은 天文, 地理, 花品, 草莽, 樹木, 菓實, 禾穀, 蔬菜, 禽鳥, 獸畜, 鱗介, 蝦蟲, 身體, 天倫, 儒學, 書式이며, 중권은 人類, 宮宅, 宮衙, 器皿, 食饌, 服飾, 舟船, 車輿, 鞍具, 軍裝, 彩色, 布帛, 金寶, 音樂, 疾病, 喪葬이며, 하권은 雜語를 제시하고 있다. 아동 학

다. 그러나 한자와 한자어를 완벽히 분리하여 학습할 수 없으므로 한자 및 한자어 학습이라고 할 것이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습자를 天文에서 비롯하여 하늘과 땅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익히므로써 자연세계에서 시작하여 문화와 문명으로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다. 한 책으로 일상 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몸으로 체험하는 자연의 사물과 규칙, 인간세계를 인지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오늘날 융합교육적 관점에 시사받는 바가 크다(한예원 2014:279). 특히 경험을 토대로 사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은 문자 교육에 입문하는 아동들의 학습 동기를 효과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40)

구분	분류내용
上卷 (1,120)	天文(72), 地理(136), 花品(16), 草莽(64), 樹木(40), 菓實(40), 禾穀(24), 蔬菜(64), 禽鳥(88), 獸畜(64), 鱗介(40), 蜫蟲(104), 身體(208), 天倫(96), 儒學(32), 書式(32)
中卷 (1,120)	人類(112), 宮宅(96), 宮衙(88), 器皿(312), 食饌(80), 服飾(88), 舟船(32), 車輿(24), 鞍具(24), 軍裝(64), 彩色(24), 布帛(24), 金寶(32), 音樂(16), 疾病(80), 喪葬(24)
下卷 (1,120)	雜語

*( )안은 수록 한자 수
(『訓蒙字會』目錄)

위의 (40)분류에 대하여 한예원(2009:670-671)은 상권에서 天文, 地理로 시작하여 天倫, 儒學으로 맺고 있는 것은 자연세계를 반면에 중권은 人類, 宮宅에서 시작하여 疾病, 喪葬으로 맺고 있는데, 인간세계를 인지하기 적합한 분류 체계라고 하였다. 이에 동일한 견해로 임만영(1976:7)은 상권은 자연적인 것이고 중권은 문화적인 것이며, 하권은 기타의 것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박금자(1995:317-31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 글자가 가진 의미 영역에 따라 글자들을 종류별로 묶어서 배열하였다는 점에서 『訓蒙字會』를 분류서로 보고 유별 분류 체계를 논의하였다. 또한 이을환(1982:165-169)에서도 부류의미는 논리학상 범주개념으로 볼 때 개념상 상위·하위요, '레벨'(level)상 고차원·저차원이요, 영역상 대부류·소부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訓蒙字會의 상권·중권은 각 목록보다 상위로 대부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하여 이을환(1982)의 일부를 정리하여 옮기기로 한다.

(41)

상권	일. 자연현상	일. 천지부류	천문, 지리
		이. 식물부류	화품, 초훼, 수목(일반식물)
			과실, 화곡, 소채(식품류)
		삼. 동물부류	금조(조류)
			수축(수류)
			인개(어류)
			곤충(충류)
	이. 인문·사회·문화현상	일. 인륜부류	신체, 천륜
		이. 문화부류	유학, 서식
중권	일. 사회·문화부류	인류, 궁택, 관아, 채색, 질병, 상장	
	이. 도구부류	일. 생활도구부류	기명, 식찬(식류)
			복식, 포백(의류)
			금보(패류)
		이. 사회도구부류	주선, 차여, 안구, 군장

(이을환, 1982:165-169)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의 (41)목록은 이어서 이차적으로 파생되는 소부류 의미를 부여하고 상권과 중권의 목록을 상위개념에서 하위 부류 나뉘었다. 임만영(1976:7)은 기명의 항목을 두고도 '器'자나 '皿'자가 하권에 수록된 모순을 언급하고 있으며, 신경철(1978:17, 148)도 하권에 반실반허자들만 모아 놓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반허자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訓蒙字會』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하권의 잡어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않다. 하권을 단순히 상권, 중권에 수록된 한자와 연결되는 품사들이라고만 설명한다. 그런데 한예원(2009:671)에서는 하권의 잡어에서는 스토리가 있는 내용 구조로 상권, 중권에서는 천지인의 의미범주별로 분류체계를, 하권에서는 그 분류 체계에 대한 인지론적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자의 학습을 통해 한자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경우, 학습자는 풍부한 한자어 어휘를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확장된 어휘량은 정확한 의미 이해의 바탕이 되고, 자신의 의견, 감정 등을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학습 단계를 거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문 목적을 위한 학습자는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전문적인 지식의 이해와 독해력의 증진을 위해 한자와 한자어 학습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에는 한글이 창제된 것을 계기로 "語文一致"의 필요성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계기로 "語文一致"의 여건이 조성되었지만, 여전히 한글이 문자 생활의 중심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관한 논의로 이광호(2002:243)는 『訓民正音』이 창제된 이후 약 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의 공식적인 지위는 이와 한문이 차지하였고, 한글은 비공식적인 지위만을 맡아왔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로 정리하였다.

(42)

한글사용 (하층계급)	⇦	한문중심의 문자정책	⇨	한어학습 (상층계급)

(정재철, 2009:27)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의 (42)는 조선시대에 상층계급을 중심으로 지속된 한문중심의 어문 생활에서 한자의 音과 義에 대한 지식, 나아가서 한문 속의 한자어 등의 주석적 지식은 필수적임을 나타내었다(정재철 2009:27). 『訓蒙字會』에 제시된 표제자들이 대부분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1,800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僻字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최세진이 살던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언어적 환경이 서로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訓蒙字會』는 한문 중심의 언어 생활에서 아동들이 한자 교습서로 사용하던 『千字文』과 『類合』의 문제점을 보완한 한자 학습용 교재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訓蒙字會』의 편찬이유는 訓蒙字會引에서 밝혔다. 어린아이들이 단지 글자를 암기하여 익히는 것에서 벗어나, 글에서 익힌 한자를 실제 일상생활에서 직접 눈으로 경험한 사물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千字文』이 고사를 가려 뽑아 배열하여 문장을 만드는 학습은 좋지만, 한자를 겨우 익혀야 할 아동들에게는 학습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類合』은 類別로 글자를 모아놓기는 했지만, 허자가 많고 실자가 적어 사물과 형명의 실제를 알 수 없었다. 『千字文』과 『類合』을 배운 후에 경서나 사서를 읽게 되면, 글자가 가리키는 사물의 실체는 알 수 없고 글자의 뜻만 이해할 것이다. 『訓蒙字會』는 최세진이 어린아이들의 한문 중심의 언어 생활에서 교재를 통하여 학습한 문자와 실제 눈으로 본 사물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字與物一"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한자를 교육하고자 편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訓蒙字會』는 한자를 전실지자, 반실반허자, 허자의 유형으로 나뉜다. 상권과 중권에 조수초목지명을 중심으로 하는 실자를, 하권에는 반실반허자를 수록하였다. 이 교재에 수록된 3,360자의 표제자 중에서 2,240자는 상권과 중권에 수록된 실자이고, 1,120자는 하권에 수록된 반실반허자이다. 여기서 허자가 많이 수록된 『類合』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訓蒙字會』는 『千字文』과 『類合』과 달리 註를 가지고 있는데, 새김과 음만 달아놓은 『千字文』과 『類合』과는 대비됨을 보인다. 이와 같이 실자 중심의 한자를 표제자로 제시하고, 표제자에 대응하는 새김과 음을 붙였는데 이를 위해 이상도(1992:201-202)의 일부를 정리하여 제시하기로 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3)

표제자	釋	註	표제자	釋	註
字	집 우	四方上下曰-又屋邊也詹-	宙	집 듀	又舟車所極覆也往古來今曰-
宮	집 궁	君宮	闕	집 궐	居俗呼內府內裏又失也過也少也
宸	집 신	倦居稱紫-又太子居曰儀-	殿	집 뎐	君居俗呼正-偏-
屋	집 옥	俗呼房-	宅	집 택	俗呼大-子
家	집 가	俗呼-當自稱寒-寒居	房	집 방	俗呼-子瓦-草-
廳	집 텽	俗稱正-公-	廨	집 ㅎㆍㅣ	公廳俗呼-舍
室	집 실	後爲-	堂	집 당	前爲-又詹階內曰-
閣	집 각		廡	집 무	堂下周廊學宮有東西-
厦	집 하	大屋又音沙俗稱披-東西夾室	广+齋	집 ㅈㆍㅣ	燕居茅舍俗通作齋學宮有東西-
院	집 원	垣墻內又-落	廂	집 샹	堂下周廊又東西夾室又軍士寄息之所
邸	집 뎨	君國朝宿之舍在京者必有外貨	舘	집 관	客舍亦作館
觀	집 관	道宮又平聲볼관見下卷			

(이상도, 1992:201)

위와 같이 '집'으로 표기된 25개의 표제자 중에 '閣'을 제외하고 24자가 실려있다. 註의 내용을 보면 字形, 字音, 意味, 用例, 中國 俗語 등 형태를 이루고 있다. 첫째, 字形에 대한 註에서는 '舘' 에 "亦作館"이라고 하여, '舘'의 異體字로 '館'이 있음을 밝혔다. 둘째, 字音에 대한 註에서는 '厦'에서 "又音沙"라고 하여, '厦'는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라는 음과 함께‘沙(사)’라는 음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觀’ 에서는 “道宮又平聲볼관見下卷” 이라고 註를 달아, ‘觀’은 ‘道宮’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平聲으로 읽을 때에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셋째, 意味에 대한 註의 예로 ‘宸’의 ‘倦居’, ‘廨’ 의 ‘公廳’, ‘廬’의 ‘民居’ 등이 있고, 표제자가 다른뜻을 가지고 있는 예로 ‘闕’의 ‘又失也過也少也’, ‘廂’의 ‘又東西夾室又軍士寄息之所’ 등이 있다. 넷째, 用例에 대한 註로 ‘宇’의 ‘詹-’, ‘宮’의 君宮’, ‘宸’의 ‘紫-’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中國 俗語는 註에서 ‘俗呼’, ‘俗稱’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闕’의 ‘俗呼內府內裏’, ‘殿’의 ‘俗呼正-偏-’, ‘屋’의 ‘俗呼房-’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된 註는 아동 학습자가 경서나 사서를 읽을 경우 ‘집’과 관련된 한자의 형체와 명칭을 이해하는 데 쓰였다. 더 나아가 글로 익힌 한자와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사물이 학습에 일치되면서 당시 아동들이 한자 학습을 통해 경서를 읽기 위한 기본 과정이었음을 의미한다.

4.2.2. 글자의 구성을 활용한 한자 및 한자어 학습

한자를 처음 접할 때 겪는 어려움이란 필자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대의 학습 방법인 낭독과 암기로 구성된 한자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 의욕 향상이 어려울 것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한자의 난해한 특성을 이해하기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여기에서 한자를 처음 배우는 아동들이 흥미롭게 한자를 학습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어야 한다는 점 등이 우선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訓蒙字會』를 비롯한 『千字文』, 『類合』 등의 한자와 한자어는 문자 교육 학습서로서 어휘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나 『訓蒙字會』는 3,360자에 달하는 한자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와 한자어 학습에 활용하면 많은 어휘력을 확보할 수 있다. 『訓蒙字會』를 비롯한 문자 교육 학습서는 문장의 뜻을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낱낱의 한자와 한자어를 익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한 논의를 위해 김종운(2001)의 일부를 정리하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옮겨 오기로 한다.

(44)

天地霄壤 乾坤宇宙

(『訓蒙字會』)

위에서 볼 수 있듯이 『訓蒙字會』의 예를 들면 (41)의 문장을 배울 때 '하늘 천, 땅 지, 하늘 소, 흙 양, 하늘 건, 땅 곤, 집 우, 집 주'로 한자 각각의 훈과 음을 외워야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자 하나하나의 훈음을 외워 한자를 익히고 다음 단계의 학습 방법으로 天地와 宇宙와 같은 한자어를 익히고 이어서 '天地霄壤 乾坤宇宙'의 문장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당대의 문자 교육의 학습 방법은 '天地霄壤 乾坤宇宙'와 같은 한자를 익힐 때 한자의 훈음과 자형을 외우는 것으로는 학습 능률이 잘 오르지 않을 것이고, 처음 한자를 접하는 아동들에게는 단계가 거듭될수록 한자 학습이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나 초학자가 한자를 처음 배울 때 한자가 구성된 원리를 활용한다면 글자의 뜻을 유추하고 의미를 생각해내는 한자 학습이 될 것이다.

한자는 표의 문자로 한자 한 글자마다 形, 音, 義의 3요소를 형성한다. 즉, '天'을 배울 때 '하늘 천'이라고 소리 내어 훈음을 익히고, 한자의 형태를 써서 배웠다. 김종운(2001:143)은 한자는 상형 문자에서 시작된 표의 문자인 관계로 구조적으로 조형성과 예술성을 갖춘 문자이며, 한자는 글자마다 그 고유한 모양, 소리, 뜻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訓蒙字會』의 첫구인 '天地霄壤'의 '天'자를 글자의 구성 원리를 활용한 한자 학습으로 풀어보면 하늘을 뜻하는 '天'자는 하늘을 표시하는 '一'과 '大'의 뜻이 합쳐진 한자이다.[11] 이를 위해 김종운(2001)의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1) 이미 만들어진 둘 이상의 한자를 합하여 새로 뜻을 나타낸 원리로, 회의자로 김종운(2001)을 참조하였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5)

하늘 천(天)은 하늘(一)이 사람(大)이 서 있는 모양으로 머리 위에 높이 펼쳐져 있는 것을 나타내어 '하늘 천'이라고 한다.

(김종운, 2001:144-145)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김종운(2001:144-145)은 '天'을 하늘과 사람으로 부분을 구분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42)와 같이 풀이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한자는 원래 자연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자가 기원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본뜬 '大'자의 구성 원리를 배우면 '天'의 형태와 의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天'을 배울 때 '하늘 천'이라고 소리 내어 훈음을 배우고 한자의 형태를 써서 익힌다면 形, 音, 義를 고루 익히고, 한자의 구성을 잘 이해하게 되면 '天'의 실질적인 뜻까지도 배울 수 있게 된다.

4.2.3. 부수를 활용한 한자 및 한자어 학습

한자를 배울 때 부수를 익히는 것은 한자를 바르게 쓰고, 원래 뜻 글자인 한자를 좀 더 과학적이고 쉽게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한자는 모두 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자의 글자 모양을 바탕으로 부수를 잘 활용한다면 많은 한자의 뜻을 익힐 수 있다. 기본적인 부수를 익히는 학습만으로도 한자의 뜻을 익히고, 한자의 학습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訓蒙字會』의 '天地霄壤'의 한자 중에서 '天'자의 부수인 '大'자의 부수를 다음의 예로 두고 살펴보자.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46)

부수	한자	
	天	
大	부수명	큰 대
	의미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크게 서있는 모양
	용례	天地, 天文

(김종운, 2001:144-145)

부수 분류 학습의 단계에서 부수에 대한 학습은 한자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는 물론 부수의 형태와 명칭, 의미 파악에 도움을 준다. 부수 분류 학습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밟아 나가면 뜻글자인 한자 학습에 있어 새로운 한자를 보았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부수자의 의미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새로운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訓蒙字會』는 한자를 類別분류체계를 이루고 있어 부수에 대한 학습을 하기에는 더욱 활용적일 수 있겠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47)

蜘蛛蚇蠖 蛉蛚蜻蜓 蠨蛸蟢螯 蛺蝶蛾螢 蚯蚓蛐蟮 蠐螬蝸蠅 蛇蟒虺蝮 蠆蠍蚊蝠 蟂蟾蜉蝣 蠷螋蜣蜋……螞蚱蝗螽 螺螄螫蝥 蟋蟀蟻蚕 虼蚤蟣蝨 蜉蝣蠛蠛 蛆蜂蛀蠹 蚍蝐蠮蝓 暇蟆蟾蜍 蝌蚪蛞蠢

(『訓蒙字會』)

『訓蒙字會』의 '蜫蟲'을 살펴보면, '虫'의 부수자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종운(2001:145)에서는 한자의 부수는 공통적인 부분을 따로 떼어 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동류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요소로 모양을 바탕으로 했지만 의미의 동질성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종운(2001:146)에 의하면 허신은 먼저 한자를 형체와 의미에 따라 분류하여 배열하였는데 『說文解字』에서 540개의 부수를 처음으로 제시하였으며 매 部 의 첫째 자를 부수라고 불렀다. 이에 (43)은 '虫'이라는 모양을 바탕이며 벌레에 해당되는 의미 측면에서도 일치한다.

『訓蒙字會』가 비록 부수나 획, 음에 의한 문자 배열이 아니라 해당 문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 중시의 원칙에서 내용체계가 구성되어 있다지만 한자새김의 자전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미루어 당시의 문자 구성 상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구성이라 할 수 있다(안경상 2002:336). 『訓蒙字會』는 정치, 경제 군사 분야를 비롯한 사회 생활의 전반 분야는 물론 동물, 식물과 사물 현상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측면까지 반영하였다.

박석근(1999:11-12)은 『訓蒙字會』와 『千字文』의 한자음과 훈을 고찰하면서 한자의 새김이 부수 생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수가 생략된 同音異意字로까지 사용이 확대된 한자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박석근(1999)의 일부를 정리하여 옮겨 오기로 한다.

(48)

가. 意: ㅂㅣㅡㄷ 의
나. 尊: 존ㅎㆍㄹ 존
다. 祭: 졔ㅎㆍㄹ 졔
라. 左: 읠 좌
마. 學: ㅂㅣ흘 ㅎㆍㄱ
바. 舍: 집 샤

(『訓蒙字會』)

위에서 볼 수 있듯이 (45가)는 '意'의 훈음을 보면 'ㅂㅣㅡㄷ 의'로 되어 있고, 『千字文』 역시 『訓蒙字會』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다. 반면에 (45다)의 '祭'자의 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음을 살펴보면, 『訓蒙字會』에서는 '졔ㅎ、ㄹ 졔'로 되어 있지만, 『千字文』의 경우는 '나라 채'로도 기록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나라 '菜'란 '祭'를 풀이한 것인데 '祭'와 '菜'의 관계로 보아 '祭'의 사용 또한 '졔ㅅ、 졔'라는 훈음뿐만 아니라, 부수 '艹'가 생략된 '菜'의 의미까지 확대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결국 '祭'는 '졔ㅎ、ㄹ 졔'라는 훈과 부수 생략 한자로 쓰였다(박석근1999:8).

4.2.4. 한자 및 한자어 학습의 효과

한자와 한자어 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 효과적인 어휘 학습 방법으로 한자, 한자어 학습을 연결시키는 것이 한자, 한자어 학습의 목적이 될 것이다. 또한 처음으로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한자를 보다 친숙하게 느끼도록 해야 하고 어휘 학습에 있어서 한자와 한자어를 장애 요소로 느끼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한자 교육의 목적은 경서와 사서를 읽고 시문을 창작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즉, 立身揚名에 나아가는 것이었다. 당시 아동들의 기초한자는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외워야만 되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들의 한자 교육은 학습한 문자와 경험을 통해 인식된 한자 교육 학습이 경서와 사서에 나오는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고 과거에 급제하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달리 오늘날의 초중고 학생들의 한자 학습은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히고, 한문 독해와 언어 생활에 활용하여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이것은 한문을 읽고, 쓰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문을 읽기 위한 학습 과정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5. 결론

『訓蒙字會』에 대한 사적 검토는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정리되었다. 연구개관에서 살펴보았듯이 『訓蒙字會』는 여러 국어학자들의 의해 상세히 연구되었으며 수차례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총체적으로 연구되었다. 『訓蒙字會』에 대한 연구가 초기에는 주로 서지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뒤를 이어 異本간의 비교, 검토가 이어졌으며, 한자 음 · 훈에 관한 연구, 방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학위논문으로 시작되며 어휘 연구 각론까지 진행되었다.

『訓蒙字會』의 등장은 당대 최고의 역관으로서 조선의 중요한 통역은 거의 담당했던 최세진은 어학에 굉장한 능력을 보인 한편, 그에 대한 저술도 활발히 했는데 『訓蒙字會』는 그 일환으로 편찬된 책이었다. 최세진은 당대의 대표적인 『千字文』과 『類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문제의식은 『訓蒙字會』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訓蒙字會』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千字文』과 『類合』이 기존의 학습서의 불편함인 것으로 파악된다. 『千字文』은 글자를 韻字에 따라 배열함에 따라 계통과 체계가 없는 학습서이며 아동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학습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訓蒙字會』 편찬 방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訓蒙字會引을 통해 최세진은 실체를 나타내는 글자를 우선시했고, 실자를 배운 이후에 허자를 학습하도록 했고, 글자를 배열할 때는 일정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凡例를 통해 한자를 선정한 기준이 명료하고, 다양한 의미의 한자는 그 의미를 모두 실었고, 글자 수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현실의 언어를 고려했고, 쓰이는 바를 중점으로 삼아 편찬했다는 점 등을 알았다. 『訓蒙字會』가 4차례에 걸쳐 만들어지고 수정된, 한자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해결하는 데에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정된 한자표를 떠올려볼 수 있는 중요한 밑그림이 된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것이 본론의 첫 번째 장에 해당한다.

본론 두 번째 장에서는 『訓蒙字會』를 기존 선행 한자 학습서인 천자문, 유합,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증유합과 비교하여, 『訓蒙字會』의 체제, 문자 배열 및 종류로부터 『訓蒙字會』의 문자 학습서로서의 성격과 특성을 논하였다. 16세기의 문자 교육 모습이 훈몽자회에 반영되어 학습서로서의 용도에 알맞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고, 천자문, 유합 등의 특징을 통해 『訓蒙字會』와 견주어 정리하였다. 『訓蒙字會』는 어휘 분류 기준과 항목의 배열 순서에 따라 구성됨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訓蒙字會』, 『千字文』, 『類合』, 『新增類合』이 공통적으로 어휘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구분하였고, 분류 체계적인 구성을 띠었다. 둘째, 『訓蒙字會』의 각 항목 아래 한자를 배열하여 항목의 표제어가 항목의 상위어로 구성되어있고, 그 항목에 속한 한자를 하위어로 이루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항목별로 각 항목에 속한 한자가 전반적으로 상위어, 전체어가 먼저 보이고, 하위어, 부분어가 나중에 속하였다. 셋째, 『訓蒙字會』는 4자씩 유별하여 서로 운을 맞추어 편찬되어 목록에서 항목의 배열을 제외한 한자 각각의 배열됨이 운자에 따라 배열되어 계통과 체계를 보인다.

『訓蒙字會』의 내용을 이전 한자 학습서들과 비교 분석해본 결과를 종합하면 4종 학습서 중 『訓蒙字會』가 3,360자의 가장 많은 한자를 수록하고, 영역별로 항목을 세분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류체계의 영역별로 항목을 나열한 결과 어린 학습자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을 먼저 익히기위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한자가 명사 위주의 한자를 수록한다는 점은 언어학습 과정에서 명사류를 먼저 학습하는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또한 많은 양의 한자를 수록하고 익히기 위함은 어휘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고 어려운 한자를 미리 익혀 다음 단계의 한자 학습 선행 될 것이라 생각된다.

『訓蒙字會』를 통해 당시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언문을 널리 보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시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한문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 문자를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에게 가장 명확한 동기부여가 됨 셈일 것이고, 배우고자하는 사람들로 인해 널리 보급되었을 것이며, 교육되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문을 배워 통달하기보다는 몇 가지의 원리방식만 적용하여 스스로 일깨우는 방법으로 『訓蒙字會』의 凡例의 諺文字母는 교육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특히 諺文字母에서는 한글 사용법에 관해 설명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결론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적으로 '諺文字母'는 당시의 교육에 표준적인 내용이 되었고, 앞에서 보았듯이, 자음과 모음의 음가를 최초로 지정했으며, 자모 배열체계는 확립은 오늘날 국어와 역사적 자료 등 한글을 보급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훈몽자회의 한자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한자의 구조를 파악하고, 구성 원리를 활용하며, 부수를 활용하도록 학습서 나름대로의 내용상에서 독창성을 발견할 수 있어 최세진이 문자 교육을 위한 새로운 한자 학습서를 편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잘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 대해 정리하면서 예시를 제시하였는데, 기존의 논의를 이용하다보니 넓은 연구가 되지 못하였다. 또한 많은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다보니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계속 나오면서 訓蒙字會』에 대한 연구가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참고자료

훈몽자회 예산문고본(1527)

훈몽자회 동경대학본(1592년 이전)

천자문 광주간본(1575)

천자문 내각문고본(1583)

유합 칠장사본(1644)

유합 송광사본(1730)

유합 영장사본(1700)

신증유합 나손본(1576)

문헌자료

강명숙(1998), 「조선중기 초등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교육사학연구.

강신항(1985), 「실학시대학자들의 업적에 대하여 : 李思質과黃胤錫」, 교육논총.

강신항(2010), 「훈민정음 창제와 연구사」, 도서출판 경진.

강우영(1990), 「16C 초학교재 연구」, 안동한문학연구, pp.107-128.

국어연구소(1988), 한글 맞춤법 해설 p8.

권오석(1993), 「서당 교재의 간행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근수(1971), 「훈몽자회이본고」, 학술원논문집, 제10집, 서울.

김석득(1975), 「한국어연구사 상하」, 연세대학교.

김문기(2009), 「어휘 학습서로서의 훈몽자회: 훈몽자회 중(中)의 '인류' 항목을 중심으로」, 한글학회.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세환(2007), 「천자문의 유래와 대의 고찰」, 중국학연구, Vol.42 No.-, 중국학연구회.

김용동(1985), 「조선시대의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김원기(2002), 「고등학교 교육용 기초한자의 대표새김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5.

김종운(2001), 「조선조 몽학 교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pp.1-219.

김진규(1993), 『훈몽자회 연구』, 형설출판사.

김희진(1988ㄱ), 「훈몽자회의 어휘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p.1-338.

김희진(1988ㄴ), 「훈몽자회의 어휘 교육에 관한 고찰(1) : 名詞 字訓의 類意關係構造를 中心으로」, 어문연구.

김희진(1989), 「훈몽자회의 어휘교육에 관한 고찰(Ⅲ) - 同音異意關係와 反意關係構造를 中心으로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희진(1999), 「최세진의 저서 해설」,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연구원.

남광우(1958), 「훈몽자회 색인」, 논문집.

남광우(1966), 「훈몽자회의 음훈연구」, 가람 이병기 박사송수논문집, 삼화출판사.

남광우(1984ㄱ), 「상용한자훈연구1」, 인하대인문과학연구논문집,10.

남광우(1984ㄴ), 「상용한자훈연구2」, 어문연구, 4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남광우(1987ㄱ),「상용한자훈연구4」, 어문연구, 5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남광우(1987ㄴ), 「한국에 있어서의 한자문제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1집, 국어연구소.

남풍현(1972), 「중세국어의 중국어 차용 연구」, 논문집, 한양대학교.

류점숙(1984), 「조선시대의 아동교육관 연구」, 사회과학연구.

방종현(1954), 「훈몽자회고」,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33-174.

박금자(1995), 「분류 해석 학습서로서의 훈몽자회」, 국어학26, 국어학회, pp.317-340.

박병채(1971), 「조선조 초기 국어한자음의 성조고 - 훈몽자회의 전승자음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41-58.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박병채(1972), 「훈몽자회의 이본간 이음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pp.177-208.

박병철(1984), 「훈몽자회 자석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박병철(1986), 「신증유합의 한자음연구」, 동천조건상선생 고희기념논집.

박병철(1987), 「한자학습서의 훈, 음동일자 연구 ~ 국어 어휘사의 측면에서 ~」, 한국어교육학회.pp.85-114.

박석근(1999), 「훈몽자회와 천자문의 한자음과 훈의 변천고」,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pp.1-110.

박태권(1974), 「최세진연구: 그의 言語學的 업적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태권(2006), 「노걸대언해 연구」, 부산대학교.

서재극(1980), 「중세국어의 단어족연구」, 계명대출판부.

서병국(1965), 「훈민정음 혜례본 이후의 이조국어사 시비」, 논문집 제9집, 경북대학교.

서병국(1973), 『신강국어학사』, 형설출판사.

석주연(1999), 「백련초해의 이본에 관한 연구」, 규장각22, pp.69-92.

석주연(2003), 『노걸대와 박통사의 언어』, 태학사.

손희하(1984), 「천자문 자석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손희하(1991), 「새김 어휘 연구」, 전남대 박사논문.

시정곤(2007), 「훈민정음의 보급과 교육에 대하여」, 우리어문학회, pp.33-65.

신경철(1978), 「한자 자석 연구」, 통문관.

안경상(2002), 「훈몽자회에 반영된 15세기 이후의 고유어사용 실태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Vol-No.1, 국립국어원.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 창제로부터 19세기까지 -」,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안병희(1999), 「문화서당(2): 유합」, Vol.2 No.-, 한글한자문화.

안태종(1981), 「훈몽자회 성조의 비교연구 : 특히 판본간에 다르게 나타난 성조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유창균(1969), 『신고국어학사』, 형설출판사.

이광호(2002), 「개화기의 어문정책, 동양학, Vol.32 No.-,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이기문(1971), 『훈몽자회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동아출판사.

이기백(1991), 「국어음운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이돈주(1979), 「훈몽자회 한자음 연구」, 전남대학교.

이돈주(1981), 『주해 천자문』, 박영사.

이병근(1992), 「근대국어시기의 어휘정리와 사전적 전개, 동양학」, Vol.22 No.-,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이상도(1992), 「훈몽자회 편찬동기와 특징」, 중국학연구회.

이상도(1995), 「조선 전기의 중국어 교육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교육학회.

이숭녕(1965), 「최세진 연구」, 아세아학보, 제1집, 아세아학회.

이을환(1982), 「훈몽자회의 의미론적 연구」, 논문집, Vol.23 No.-, 숙명여자대학교.

이응호(1983), 「Hoffmann의 천자문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

이응백(1991), 『국어교육사연구』, 신구문화사.

임만영(1976), 「훈몽자회에 관한 고찰」, 한국교통대학교 논문집, 충주대학교.

임지룡(1989), 「국어 분류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 국어학회, pp.395-425.

정경일(1998), 「성운학의 도입과 고려시대의 운서」, 순천향어문학연구회.

정재철(2009), 「한국의 문자정책과 한문교육」, 한문교육연구, Vol. 33 No.-, 한국한문교육학회.

진동원(1970), 「중국교육사」, 대만상무인서관 고빈유한공사.

최정옥(1991), 「조선시대 초학교재에 나타난 자연교육 내용 연구」, 이화교육논총.

최범훈(1984), 「훈몽자회의 난해자석연구1」, 경기 대학원논문집(창간호).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최범훈(1985), 「훈몽자회의 난해자석연구2」, 어문논지, Vol.4-5 No.-, 충남대국어국문학과.

최현배(1941), 『한글갈』, 정음사.

최현배(1961), 『고친 한글갈』, 정음사.

한예원(2012), 「한자문화의 지식형성과 지식실천: 전통의 이해와 계승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한자 한문교육.

허왕욱(2001), 「조선시대 한자 교재의 구성 방법」, 한국초등국어교육.

홍신기(2009), 「아학편에 나타난 아동을 위한 문자교육관과 아동용 문자교육 교재로서의 시사점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황금중(2007), 「조선시대 교육의 성리학적 전개 양상에 대한 연구 현황 및 과제」, Vol.29 No.1, 한국교육사학.

동아 새국어 사전(2002), 두산동아.

연세 한국어 사전(1999), 두산동아.

우리말 큰사전(1992), 한글학회.

표준국어대사전(1999), 두산동아.

Naver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디지털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